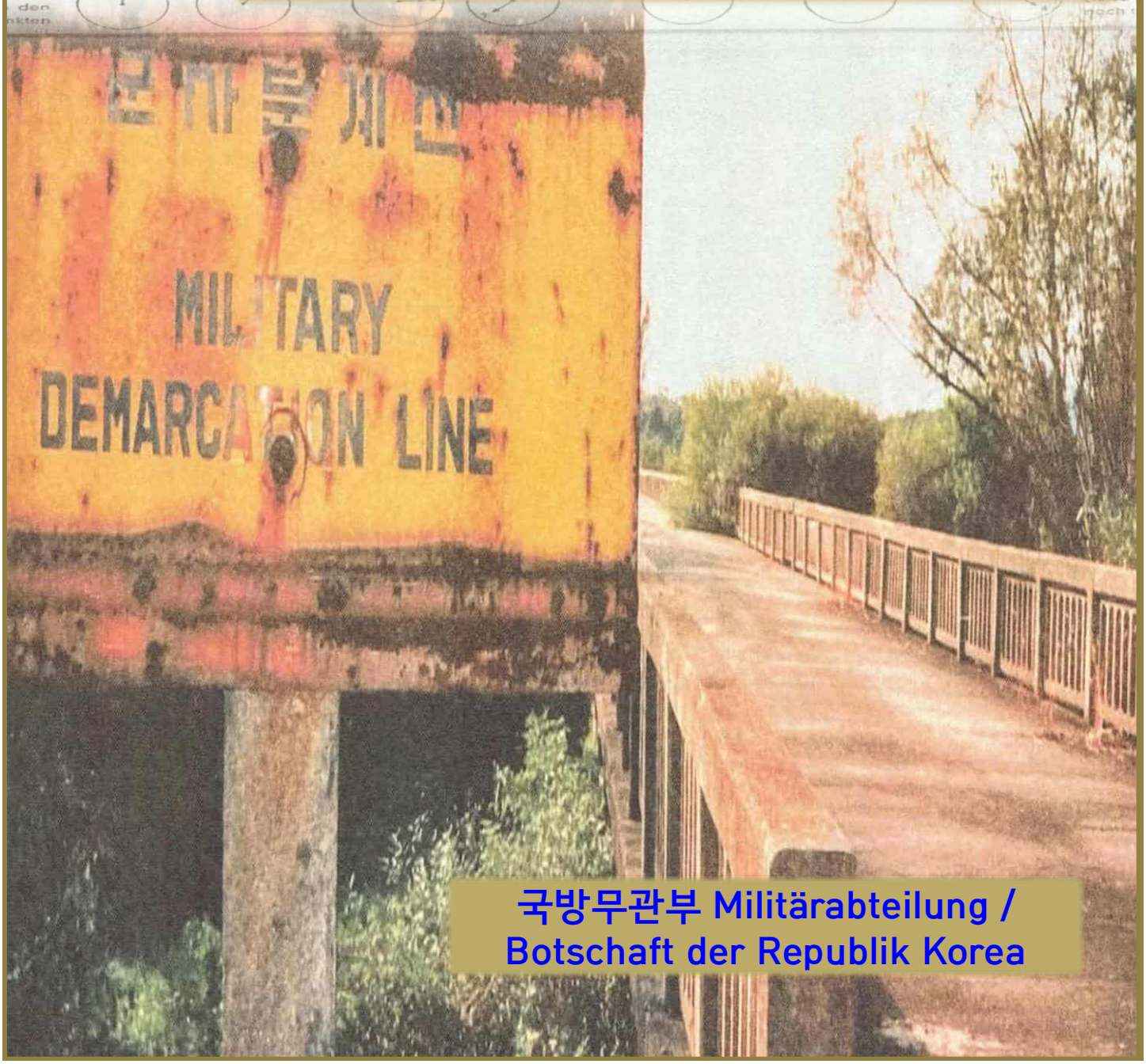
스위스 군인들의 한국 이야기



Die Geschichte der Schweizer Soldaten in Korea



국방무관부 Militärabteilung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 프레드 크렙스 Fred Krebs
- 한스 마틴 카이저 Hans-Martin Kaiser
- 크리스티안 비르히마이어 Christian Birchmeier
- 우르스 뮐러 Urs Müller
- 베아트 헨니 Beat Haeni

스위스 군인들의 한국 이야기



Die Geschichte der Schweizer Soldaten in Korea



프레드 크렙스 Fred Krebs

중감위 임무를 추억하며

프레드 크렙스 / 예비역 중위



1957-1958 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근무했고
베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던 1957년 첫번째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 대표단으로 파병되어 복무했던 동료가 한국에서의 중감위 복무를 권했다. 이는 미국 시카고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밟고자 했던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왜냐하면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여행은 특별한 것이었다.

한국 파병 후보자로 선발되었지만 곧바로 파견되지는 못했다. 당시 대부분의 중감위 대표단은 6개월 간의 계약근무 후에 파병 복무를 연장했기에, 선발자는 공석이 생겨야 파병될 수 있었다.

이후에 여러 준비과정을 이수하고, 1957년 11월 23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했다. 우리 파병팀은 4명이었다. 미국 공군의 프로펠러 비행기로 포르투칼 아조레스 제도와 캐나다 뉴펀들랜드, 미국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한 후에 11월 30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하지만 태풍 때문에 운좋게(!) 그곳에 며칠을 머물다가 12월 2일에야 뒤늦게 괌을 경유하여 일본 도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김포 공항으로 출발했다.

이미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던 스위스 대표단이 도쿄에서 우리를 픽업하였다. 당시에는 특히 바다를 횡단하는 해외여행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장거리 세계여행은 나에게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판문점에서는 장군들이 쓰던 '제임스 웨이' 텐트에서 생활했다. 텐트 안에는 석유 난로가 있었는데, 이는 추운 겨울 날씨에 매우 유용했다. 기름통은 밖에 있었고, 종종 밤에 일어나 얼어붙은 파이프 연통을 뚫어 주어야 했다.

반면에 체코와 폴란드 중감위 대표단은 북측 진영에 있는 석조건물 막사에서 생활했는데, 그들은 남쪽의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단과 달리 단기간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다.

Zur Erinnerung der NNSC Mission in Korea

Fred Krebs, Oberleutnant (ret.), Neutrale Überwachungskommission

In den Jahren 1957-1958 war er Mitglied der NNSC in Korea.
Er arbeitete als Anwalt in Bern.

Kurz vor meinem Studienabschluss (Anwaltsexamen), 1957, hat mich ein Mitglied meiner Verbindung, der in der ersten Ablösung als Mitglied der NNSC in Korea war (Arbeitgeber: Eidgenössisches Militärdepartment – damaliger Name), geraten, vor meiner Berufsaufnahme eine Tätigkeit in der NNSC anzustreben. Ein guter Rat, da ich ohnehin beabsichtigte, in Chicago eine juristische Dissertation zu verfassen, was ich auf meiner Rückreise aus Korea tun könnte. Eine Reise in die USA war damals noch etwas besonderes!

Es klappte: Ich fand Aufnahme in eine Warteliste, da die meisten Mitglieder ihren Aufenthalt nach der damaligen sechsmonatigen Anfangsdaten verlängerten.

Nach einigen Vorbereitungstagen reiste ich am 23. November 1957 nach Frankfurt ab. Wir waren vier neue Mitglieder auf unserer Reise nach Korea, die uns mit der US-Airforce in einem Propeller-Flugzeug DC6 mit damals nötigen Zwischenlandung auf den Azoren und in Newfoundland nach Philadelphia und von dort nach San Francisco brachte (28. November). Von dort ausging es am 30. November nach Hawaii und wegen eines Taifuns (glücklicherweise!) verspätet nach Tokio weiter, mit Zwischenlandung auf Guam (2. Dezember), und von dort nach Kimpo in Korea.

In Tokio sind wir von einem Mitglied der Schweizer Delegation abgeholt worden. Diese lange Reise war ein eindrückliches Erlebnis, da Auslandreisen, insbesondere nach Übersee, noch gar nicht alltäglich waren!

In PMJ (Panmunjom) bezog dann jeder sein eigenes James-Way-Zelt, ein Generalzelt mit einem Ölofen, der sehr wichtig war bei den kalten Winter-

판문점에서의 임무는 중감위 공동 사무국에 매일 상주하면서 비서 업무를 보는 것이었다. 사무국은 남측과 북측 대표단 캠프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다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교전국이었던 한국과 미국 등 유엔군 참전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들도 있었다.

하지만 비서 임무는 단지 기초적인 업무에 불과했고, 실제 주요 업무는 국경 양쪽의 5개 항만에서 정전협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중감위 대표단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4개국 중감위 대표단은 양쪽 진영의 병력과 장비의 보충이나 증원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임무는 북한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고, 남쪽도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한 활동을 중단했다.

매주 실시하는 사무국의 합동회의는 고작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양측 서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것만 확인했다. 가끔 북쪽에서 드라마틱하게 해결된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끔찍한 사건들로 차후에 밝혀졌다.




중감위 사무국 합동회의, Gemeinsame Stizung der NNSC Delegationen

매일 만나는 우리는 서로를 잘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초청장을 주고받았다. 무엇보다 북측에서 많은 초청이 있었는데, 대개는 국경 인근도시 개성에서 열리는 격식 있는 서커스와 발레, 음악회와 같은 행사였다. 새로 부임한 중감위 단장이나 부단장을 소개하거나, 전임자들과 작별할 때에도 음식과 술을 정성껏 준비하여 파티를 했다. 그때 폴란드와 체코 멤버들은 남측 대표단에게 자신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이곳에 파병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세뇌된 그들의 생각에 힘들어 보이는 남쪽 생활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들이 한국으로 파병 올 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여행 경험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독일과 미국, 일본을 경유하면서 장거리 해외여행을 했지만, 체코와 폴란드 대표단은 가장 빠른 길인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경험과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 한편, 중국과 한국의 건물은 그들의 고향 집과 거의 비슷했는데, 다만 이곳에는 그들의 가족은 없었다.

temperaturen. Das Ölfass befand sich ausserhalb, und seine erstarrte Leitung musste oft in der Nacht „aufgeklopft" werden.




판문점 중감위 숙소인 제임스 웨이 텐트, Unterkunft bei James-Way-Zelt in Panmunjom

Die Tschechien und Polen als die zwei kommunistischen Mitglieder der Kommission („Neutral Nations" laut Definition im Waffenstillstandsvertrag „Länder, die nicht aktiv am Krieg teilgenommen hatten") hatten offensichtlich nicht wie wir und Schweden mit einer kurzen Dauer des Waffenstillstands bis zum Friedens-vertrag gerechnet, und waren in Steinhäusern untergebracht!

Meine Tätigkeit war die tägliche Präsenz im gemeinsamen Sekretariat der 4 NNSC-Mitglieder, ausserhalb der südlichen und nördlichen Camps der je zwei Nationen, und über eine Brücke erreichbar, wo sich auch die Mitglieder der beiden Kriegsführenden befanden: Die US Army, Südkoreaner und Verbündete (UNO Seite) und (vorab) Chinesen und Nordkoreaner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Die Tätigkeit dieses Sekretariats war allerdings nur noch rudimentär. Meine Hauptaufgabe war die Auswertung der Fähigkeit der Teams, die die Einhaltung der Einfuhren laut Waffenstillstandsvertrag in den beidseitigen je fünf Ports of Entry kontrollieren sollten, dass kein Ersatz und keine Verstärkung von Truppen und Material eingeführt wurde. Aber diese Aufgabe wurde schon bald einmal eingestellt, denn Nordkorea hatte sie verweigert. Der Süden fühlte sich betrogen und kündigte die Kontrolltätigkeit.

Die gemeinsamen wöchentlichen Sitzungen des Sekretariats dauerten damit nur noch wenige Minuten und stellten lediglich fest, dass es anhand der schriftlichen Meldungen der beiden Seiten keine Verletzungen des Waffenstillstands gab. Vom

종종 북한의 세뇌된 주장처럼, 우리 중에도 한국 생활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이 한국을 여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기에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한국을 여행할 때면 미국의 안내 장교가 필수적으로 동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선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개관한 평양의 전쟁박물관을 방문한 경험이다. 3명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은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이동했는데, 열차 창문을 널빤지로 막아서 밖을 전혀 내다볼 수가 없었다. 혼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주로 북한 학생들에게 사상 세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북한의 가장 중요한 재건사업인 전쟁박물관을 4시간 동안 가이드 투어 했다. 박물관에는 어떻게 한국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군이 어떻게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전시하고 설명해 놓았다. 한국 전도에는 작은 램프로 전쟁의 여러 단계들을 표시하였다. 전도 옆에는 철모를 쓰고 맨손으로 철조망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빛나는 북한군 병사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또한 그 옆쪽에는 철모를 얼굴 깊숙이 눌러쓰고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 조형되어 있었다. 우리가 둘러보는 동안에는 박물관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고, 많은 아이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북한 개성에서 열린 초청 행사들, Einige Anlässe von der Einladung von Nordseite

북으로부터 온 많은 초청들은 내가 근무하던 시기에 북한이 중감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한국에서의 초청 행사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한국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자주 위반했기에 중감위 존재를 그리 신뢰하지 않았다. 북으로부터 얼어붙은 눈밭에서 눈썰매를 타도록 초청받기도 하였고, 남쪽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탁구와 체스 경기를 했고, 제설작업을 한 땅에서 테니스도 쳤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터질 위험 없이 산책도 하였다. 한번은 한국군 장교가 주말에 그의 부모님 농가로 초청하였다. 한국에는 생필품인 쌀을 생산하는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 많

Norden gab es Meldungen über Vorkommisse, die meistens dramatisch aufgearbeitet wurden, und sich dann (grösstenteils!) als Schrecknisse erwiesen.

Von Bedeutung war aber, dass man täglich zusammen war und sich kannte. Das führte auch zur Übermittlung von zeitweise sehr zahlreichen Einladungen. Diese stammten vor allem vom Norden zu oft sehr hochstehenden Anlässen (Zirkus, Ballett, Musik) nach Kaesung. Auch neue Chefs und Vizechefs der vier Delegationen wurden vorgestellt und verabschiedet, jeweils mit aufwendigem Essen und viel Alkohol. Dabei haben sie (die nördlichen Mitglieder) uns oft mitgeteilt, dass die Anwesenheit ja gar nicht freiwillig war, und stellten uns Fragen zum Leben im Süden, die nach ihrer Orientierung (Indoktrination) schwierig für sie waren.

Es wurde dabei klar, dass wir durch unsere Weltreise eine ganz andere Voraussetzung zu unserem Asienaufenthalt hatten. Die Tschechien und Polen landeten auf kürzestem Weg über Peking in Pyongyang. Sie konnten jedes Reiserlebnis und auch jeden Kontakt mit der Bevölkerung nicht so wie wir erleben. Auch die Bauten in China und Korea waren ja ziemlich gleich wie zu Hause, nur dass sie aber hier von ihren Familien getrennt waren.

Oft wurde auch die Meinung vertreten, dass es im Süden an guten Lebensbedingungen fehlte, was ganz nach der nördlichen Indoktrination entsprach. Allerdings hatten auch wir, Schweden und Schweiz, damals nur beschränkte Reisemöglichkeiten in Südkorea, da wir immer auf einen amerikanischen Begleitoffizier angewiesen waren, was sich dann bald einmal änderte.

Was eine besondere Erwähnung verdient, war die Einladung zum Besuch des kurz vorher eröffneten Kriegsmuseum in Pyongyang. Wir fuhren zu dritt mit der Eisenbahn, mit verbretterten Fenstern, damit wir nichts sahen. Alleine durften wir uns nicht bewegen. Die vierstündige Führung im Kriegsmuseum, der wichtigste Wiederaufbau, vor allem für die Indoktrination der Schulkinder gedacht, zeigte uns, wie der Süden den Krieg began und der Norden alle Schlachten gewann. Die verschiedenen Phasen waren durch Lämpchen dargestellt. Daneben waren überlebensgrosse stählerne Nordsoldaten zu sehen, alle mit aufwärtsgerichten Mützen, die Drahthindernisse mit blossen Händen zerrissen. Daneben waren die amerikanischen Feinde, mit tief ins Gesicht gedrücktem Helm und bösen Fratzen. Während unserer Führung kam sonst niemand ins Museum. Sehr viele Kinder hatten draussen zu warten.

았다. 당시에는 서울도 시골 풍경이었고, 아스팔트 도로나 높은 빌딩들도 없었다. 멀리서 그리 높지 않은 옛날의 전통 건물인 남대문도 볼 수가 있었다.




중감위 동료와 한국 방문, Besuch in Korea mit dem NNSC Kollege

한국에서 복무를 마치고 – 아쉽게도 미국 시카고에서의 학업 일정과 스위스 베른에서의 다른 계획으로 인해 근무 연장을 하지 못한 채 – 홍콩과 마닐라를 크루즈 여행하였다. 그때만 해도 홍콩은 거대한 빈민가였고, 국민들의 절반은 해변의 수상 가옥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서구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 의상을 입고 다녔고, 그림과 스케치, 도자기 등의 예술품도 무척 저렴하였다.

미국의 여행증명서를 지참하고 스위스로 돌아오는 여정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태평양 웨이크 섬에 도착한 후에 하와이로 갔고, 이후 기차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로 이동했다. 중간에는 그랜드 캐넌을 보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시카고에서 학업을 위해 9개월 동안 체류한 후에 맨체스터를 방문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여동생을 만났다. 이후에 작은 독일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기차로 스위스로 복귀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중감위 복무는 다방면으로 풍부한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공산주의 이면에 감춰진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공산주의 독재자와의 평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중립국인 스위스의 중재임무와 유엔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의 체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고 (당시 환율: 1달러=4.30프랑), 미국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와 일기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했는데, 이는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

2025년 6월 27일 베른에서

Die viele Einladungen hatten zu unterstreichen, wie wichtig der Norden die NNSC (zu meiner Zeit!) hielten. In Südkorea fanden praktisch keine Einladungen statt. Man glaubte dort nicht an die Bedeutung der NNSC, da der Norden den Waffenstillstand oft verletzte. Wir wurden von Norden etwa zum Schlittschuhlaufen auf gefrorenen Eisfeldern eingeladen. In Südcamp konnten wir uns auch sportlich betätigen: Pingpong, Schach, und sogar Tennis auf dem vom Schnee gereinigten Platz. Wir unternahmen auch grosse Wanderungen in der demilitarisierten Zone, was im Winter bei dem gefrorenen Boden ohne Minengefahr möglich war.

Ein südkoreanischer Offizier hat uns einmal ins einfache Bauerhaus seiner Eltern eingeladen. In Südkorea hatte es viele schöne Landschaften mit dominanter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 (Reis). Seoul war auch gang dörflich, kaum asphaltierte Strassen, keine Hochhäuser. Blick von weitem auf's alte, gar nicht so hohe Southgate.

Nach Abschluss meiner Tätigkeit – leider ohne Verlängerung, da ich meine Tätigkeit in Chicago und in Bern schon vergeplant hatte – komme ich noch eine Kreuzfahrt nach Hongkong und Manila unternehmen. Hongkong war noch ein riesiges Slum. Die Hälfte der Bevölkerung lebte auf Hausboot am Meeresufer.

Asien war in meiner Zeit noch kaum verwestlicht. Englisch sprach fast niemand. Die Bekleidung war noch sehr oft trational, und Kunstschätze (Malerei und Zeichnungen, Porzellan) waren sehr billig.

Die Heimreise mit einem US-Travelorder bot auch nochmals viele Möglichkeiten. In Pazifik landete ich in Wake und wieder Hawaii, fuhr mit dem Zug von Los Angeles nach Chicago, mit Halt fürs Grand Canyon. Dann nach 9 Monaten in Chicago, Flug nach Manchester, wo ich meine dort lebende Schwester besuchte, und Flug in einem kleinen deutschen Flugzeug nach Frankfurt. Von dort kam ich mit dem Zug in die Schweiz an.

Mein Einsatz in Korea war eine vielseitige Bereicherung: Kultur, Blick hinter die kommunistische Maske, Hoffnungslosigkeit des Friedens mit den kommunistischen Machthabern, gute Dienste der neutralen Schweiz, Schwäche der UNO. Dadurch schaffte ich auch die Finanzierung meines US-Aufenthalts (damalige Wechselkurs 1$=4.30CHF) mit der Möglichkeit, tiefe Einblicke in die USA zu erhalten. Alles habe ich dokumentiert, mit Briefen an meinen Eltern und das Tagebuch. Das war eine unvergessliche Erfahrung.

Bern, 27. Juni 2025

스위스 군인들의 한국 이야기



Die Geschichte der Schweizer Soldaten in Korea



한스 마틴 카이저 Hans-Martin Kaiser

중립국감독위원회 70주년을 기념하며

한스 마틴 카이저 / 예비역 대위



1976-1977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근무했고
베른州 경제공공복지협회(OGG)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 글은 한국 체류 때와 그 이후에 만든 2권의 앨범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여기에 실린 모든 사진들은 이 앨범에서 가져온 것이고, 텍스트는 이전 기억에 의지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거의 50년이 지난 일이기에, 사소한 오류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사람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들이 있다. 내게는 남북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공동경비구역의 바리케이드 앞에 서 있던 미군 지프차와 군사경찰 2명의 사진이 그 중에 하나이다. 당시 나는 14살이었고, 베른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한스 게오르그 에거' 수학 선생님은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 대표단으로 근무하고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한국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도 슬라이드 자료에 들어 있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몇 년 후, 베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중에 집을 떠나 해외에 나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잠시 학업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군에서 보병 소위로 복무 중이었는데, 선생님이 보여준 지프차 사진이 떠올랐다. 나는 곧바로 파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아돌프 카우프만' 대령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내 이름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 주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이제 한국 파병복무는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카우프만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아직도 한국 복무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고, 몇 달 후 나는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후 나의 젊은 시절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미군이 한국 여행과 수송을 담당했기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쪽이 아닌 서쪽 미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갔다. "이렇게 공짜로 하와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까?" 나는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잠시 멈추고 일주일 동안 하와이 히캄 공군 기지에 머물면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겼고,

70 Jahre NNSC in Korea

Hans-Martin Kaiser, Hauptmann (ret.), Neutrale Überwachungskommission

In den Jahren 1976-1977 war er Mitglied der NNSC in Korea. Er war tätig als Geschäftsführer der Oekonomischen und Gemeinnützigen Gesellschaft des Kontons Bern (OGG).

Dieser Bericht basiert auf meinen zwei Fotoalben, die ich während und nach meinem Aufenthalt in Korea erstellt habe. Alle Fotos stammen aus diesen Alben. Grundlage für die Texte sind Erinnerungen von mir, wie sie in meinem Gehirn abgespeichert sind. Ich bitte um Verzeihung, sollten sich hier nach fast fünfzig Jahren kleine Fehler eingeschlichen haben.

Es gibt Bilder, die prägen sich in das Gedächtnis eines Menschen ein und lassen einen nicht mehr los. Bei mir war es das Bild eines amerikanischen Jeeps mit zwei Angehörigen der Military Police vor einem Schlagbaum in der Joint Security Area JSA am Rand der demilitarisierten Zone zwischen Süd- und Nordkorea. Ich war damals 14-jährig und besuchte das Progymnasium in Bern. Unser Mathematiklehrer Hans Georg Egger kam zurück von einem sechs-monatigen Einsatz als Alternate in der NNSC. Das Foto war Teil seines Dia-Vortrags über seine Arbeit an der Demarkationslinie zwischen Nord- und Südkorea. Es sollte mein Leben verändern, ohne dass ich es damals ahnen konnte.

Jahre später – ich studierte inzwischen Volkswirtschaft an der Universität Bern – hatte ich das Bedürfnis, Abstand von meinem Elternhaus zu gewinnen und ins Ausland zu gehen. Ich war junger Leutnant der Infanterie und brauchte eine Auszeit vom Studium. Da erinnerte ich mich an das Bild vom Jeep in Südkorea und meldete mich bei Oberst Adolf Kaufmann in Bern, zuständig für die Korea-Mission der Schweizer Armee. Er setzte mich auf eine Warteliste. Es vergingen ca. zwei Jahre und ich rechnete nicht mehr mit einem Einsatz in Korea. In diesem Moment rief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참혹한 진주만 공격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후 미국의 B-747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국으로 가는 아서 보니파스 미군 대위를 만났다. 이는 내게 중요한 첫 만남이었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서술하고자 한다. 총 5번의 기차여행과 27시간의 비행, 그리고 2시간의 차량 여행 끝에 스위스와 스웨덴 중감위 캠프 앞에 도달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Marschbefehl
Ordre de marche - Ordine di marcia
Form 7.2

Sie erhalten den Befehl, vollständig ausgerüstet einzurücken
Vous recevez l'ordre d'entrer au service complètement équipé
Ricevete l'ordine di entrare in servizio completamente equipaggiato

am / le / il Sonntag, 2. Mai 1976 Uhr / heure / ore 1425

in / à / a Basel SBB, TEE-Bahnsteig

für Fahrt nach Frankfurt a/Main

Art des Dienstes / Nature du service / Genere del servizio Einsatz in der Korea-Mission

Entlassungsdatum / Date du licenciement / Data del licenziamento

Datum und Stempel der aufbietenden Stelle - Date et timbre de l'office chargé de convoquer - Data e bollo dell'ufficio che fa la chiamata

ABTEILUNG FÜR ADJUTANTUR
Der Chef der Sektion Konventionen/Sonderaufgaben

27.4.76

Billet am Vortag lösen - Prendre le billet la veille - Munirsi del biglietto alla vigilia

Der Marschbefehl ist aufzubewahren zur evtl Vorweisung im Zug
L'ordre de marche est à conserver pour être évtl présenté dans le train

11 Uhr, Sonntag, 2. Mai 1976

파병 징집명령서와 베른의 가족과 작별인사, Marschbefehl und Abschied von der Familie in Bern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캠프와 공동경비구역에서 생활했는데, 부족한 점은 전혀 없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잘 되었고, 습하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왔다. '파울 오버리'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고, 여가 시간에는 스웨덴 동료들과 당구와 테니스를 즐겼다. 캠프 주변을 조깅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았다. 매주 공동경비구역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나는 비서 보조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회의록은 거의 항상 똑같은 내용이었고 날짜만 바꾸면 되었다. 매우 간단했다.

동료들과의 유대감은 정말 좋았다. 북한에서 근무하는 폴란드와 체코 대표단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물품교환을 했다. 그들은 코카콜라를 좋아했고 우리는 체코의 필스너 맥주를 좋아했는데, 이는 미국의 올리 맥주보다도 훨씬 맛이 좋았다. 기념일 같은 행사초청이 계속 연이어 이어졌다. 처음에는 "누가 갈지?"를 놓고 논쟁했는데, 나중에는 "누가 숙소에 남아 있을 것인가?"를 놓고 논쟁했다.

좌석의 배치 규정은 엄격히 지켜졌는데, 상석부터 계급순으로 앉았다. 따라서 소위 계급의 젊은 장교였던 나는 항상 맨 끝자리에 앉았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중감위 대표단장과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여러 조언들을 해주었고, 종종 서울의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Oberst Kaufmann an und fragte, ob ich immer noch Interesse an einem Einsatz in Korea habe. Einige Monate später begann meine Reise um die halbe Welt.

Es folgte die aufregendste und interessanteste Zeit meines jungen Erwachsenenlebens. Die US-Armee war zuständig für meinen Transport. Deshalb flog ich von Frankfurt nicht gegen Osten, sondern gegen Westen über die USA nach Korea. Wer hat schon Gelegenheit, umsonst nach Hawaii zu fliegen? Deshalb unterbrach ich dort meine Reise für eine Woche, logierte in der Hickam Air Force Base, genoss das Sonnenbaden an der Waikiki-Beach und informierte mich vor Ort über den schrecklichen Angriff der Japaner auf Pearl Harbour am 7. Dezember 1941. Weiter ging's mit einer B-747 nach Japan. Dort traf ich Captain Arthur Bonifas, der ebenfalls nach Korea weiterreisen wollte. Das war eine wichtige Begegnung für mich. Von ihm wird noch die Rede sein. Fünf Eisenbahn-, 27 Flug- und 2 Autostunden später Ankunft am Checkpoint vor dem Swiss und Swedisch Camp. Ich war da!



한국 판문점의 스위스와 스웨덴 NNSC 캠프, Schweiz und Schweden NNSC Camp in Panmunjom

Von Montag bis Samstagmittag lebten und arbeiteten wir im Camp und in der JSA, der Joint Security Area. Es fehlte und an nichts. Gute Heizung im sehr kalten Winter, Klimaanlage im feucht-heissen Sommer. Schmackhaftes Essen unseres Kochs Paul Oberli, in der Freizeit Billard und Tennis mit den schwedischen Kollegen. Jogging um das Camp (Alternate Armin Widmer), am Abend Kinoprogramm (Delegationschef Claude van Muyden). Jede Woche ein Meeting in der JSA, ich war als Assistant Secretary zuständig für das Verfassen des Protokolls. Es hatte immer den genau gleichen Wortlaut, nur das Datum musste geändert werden. Easy.

당시 스웨덴과 스위스는 서울에 상주대사관이 없었고, 중감위 대표단이 한국-일본 간의 외교 특사 역할도 수행했다. 스위스 대표단은 2주마다 이 임무를 담당했는데, 이는 매우 인기가 많았다. 왜냐하면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7일간 휴가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개월마다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를 다른 동료에게 양보하면 그는 사례금을 지불했다. 수송 임무는 미국 공군의 C-130 수송기로 이루어졌는데, 한번은 조종석에 앉아서 요코타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경험을 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처음 보았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는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1953년 휴전 후의 전쟁포로 교환 과정에서 포로들은 앞으로 어느 진영에서 살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는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살던 나라와 가족과도 영원히 헤어져야 했다.



북한 공비 휴대 물품 전시, Ausstellung in der JSA: die Ausrustung der Nordkroreaner

1976년 6월 28일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비무장지대 남쪽 진영에 침입한 3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사살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공동경비구역의 탁자에는 당시 북한군이 소지하였던 수류탄과 소총, 필름, 무전기, 치약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의 공동경비구역에는 30미터 높이의 미루나무가 유엔군사령부 검문소와 관측소 사이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미군은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서 시야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30여 명의 북한 군인이 나타나서 도끼로 미군을 공격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고, 유엔군 경비중대장을 맡고 있던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1소대장인 마크 베럿 중위가 전사하였다.

Die Kameradschaft war toll. Auch mit den Polen und den Tschechen hatten wir ein sehr gutes Verhältnis. Der Handel über die Grenze florierte. Sie waren erpicht auf Coca-Cola, wir auf tschechisches Pils Bier, das uns viel besser schmeckte als das amerikanische Oli Bier. Die Einladungen zu Anlässen wie Jahresfeiertage und Ähnliches folgten in kurzen Abständen. Am Anfang stritten wir uns, wer dorthin gehen durfte; aber später «Wer daheim bleiben durf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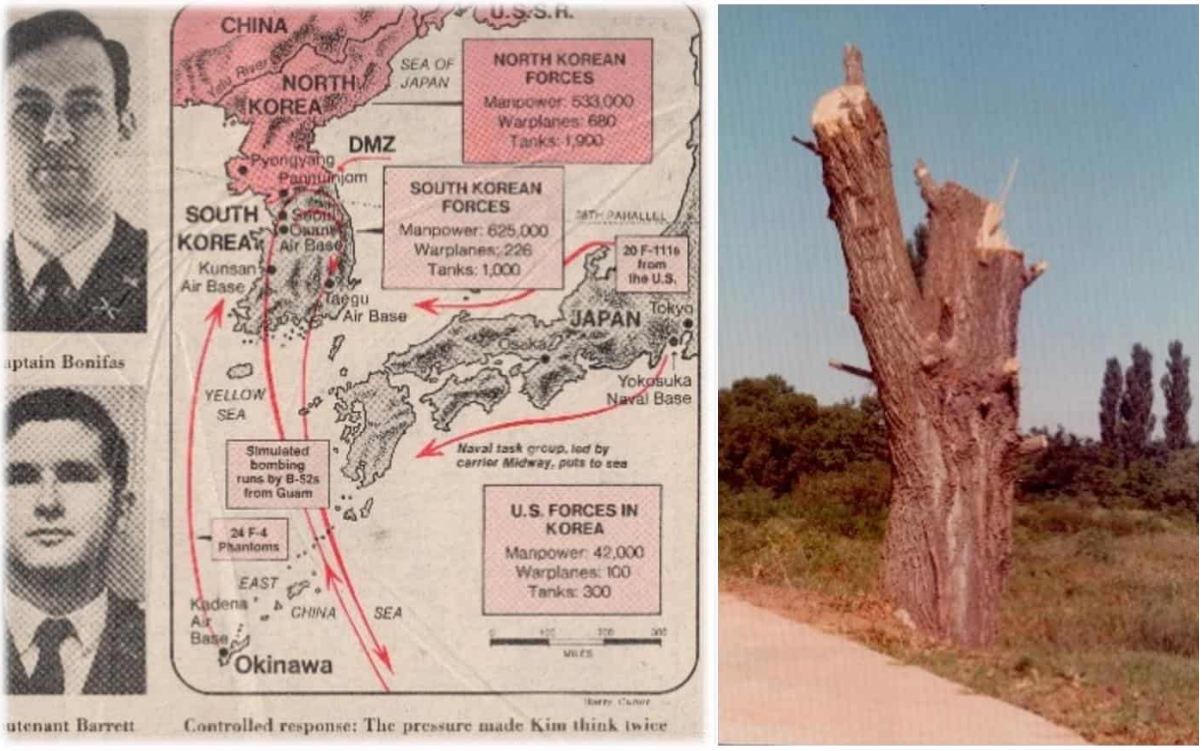
Das Protokoll der Tischordnung wurde streng eingehalten: Nach absteigendem Grad gegen das Tischende. Als junger Leutnant sass ich immer zuäusserst am Tisch. Jeden Montag-morgen der Rapport mit dem Delegations-chef, der uns väterlich fürsorglich Ratschläge erteilte und sich anschliessend oft in seine Wohnung nach Seoul verabschiedete und dort Kontakte pflegte.



클로드 반 무이덴 중감위 단장
Delegationschef Claude van Muyden

Schweden und die Schweiz besassen damals noch keine Botschaften in Seoul. Die Mitglieder der NNSC-Delegationen hatten deshalb die angenehme Aufgabe, diplomatische Kurierdienste für die schwedische und schweizerische Vertretung zwischen Südkorea und Japan zu übernehmen. Alle vierzehn Tage waren die Schweizer an der Reihe. Diese Kurier-diente waren bei uns sehr beliebt. Sie bedeuteten sieben Tage (Ferien)-Aufenthalt in Japan. Alle 3 Monate war man wieder an der Reihe. Wenn man den Dienst nicht, dann gegen Entgelt – der Übernehmende musste bezahlen! - an einen Kollegen abtrat. Der Transport erfolgte in einer C-130 Hercules der US Air Force. Einmal durfte ich den Landeanflug auf Yokota-Air Base sogar im Cockpit miterleben.

Der erstmalige Anblick der «bridge of no return» machte mich tief betroffen und liess mir die ganze Tragödie dieses geteilten Landes vor Augen erscheinen. Hier mussten sich die gefangenen Soldaten beim Austausch nach dem Waffenstillstand 1953 entscheiden, auf welcher Seite sie in Zukunft leben wollten. Nicht nur das Land, auch Familien wurden hier für immer getrennt.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자료 및 벌목 작업 후의 미루나무 사진
Darstellung von Axt-Mord in Panmunjom und Rappelbaum nach der Schnedigung

3일 후,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미루나무를 베어서 그루터기만 남겼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수많은 헬리콥터 등 대규모 군사력이 인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미루나무 벌목 작전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방탄조끼를 착용한 미군은 부재중인 스위스 중감위 대표단장을 대리하던 부단장 아르민 비드머 대위에게 벌목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중감위 단원들을 서울로 대피시켜야만 하는지 물었는데,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나와 '클로드 반 무이덴' 대표단장을 제외한 다른 스위스 대표단은 미루나무 벌목 작전을 직접 목격했다. 일본에서 수송 임무를 수행 중이던 나는 일본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서 "판문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에 이러한 사건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가 없었다.

이 심각한 사건에서 배운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1976년 9월 6일,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은 "양측의 군인들은 판문점 군사정전구역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800미터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자의 영역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전에 양측의 군인들은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이동할 수가 있었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졌다. 그리고 회의실의 탁자는 군사분계선 중앙을 가로지르도록 배치되었고. 양측은 각자의 진영에서 회의실로 입장했다.

Am MAC-Meeting (Military Army Commission) vom 28.6.1976 wurde informiert, dass drei nordkoreanische Soldaten südlich der DMZ aufgegriffen und von der ROK-Army getötet wurden. Ihre Ausrüstung wurde in der JSA auf Tischen ausgestellt, u.a. eine Handgranate, Sturmgewehr, Filmrollen, Funkgerät, Zahnpaste, etc.

Am 18. August 1976 war in Panmunjom die Hölle los. In der gemeinsamen Sicherheitszone, nahe der Brücke ohne Wiederkehr, verdeckte eine dreissig Meter hohe Pappel die Sichtlinie zwischen einem Kontrollpunkt des Kommandos der Vereinten Nationen (UNC) und einem Beobachtungsposten. Die Amerikaner wollten die Pappel deshalb zurückschneiden. Plötzlich erschienen etwa dreissig nord-koreanische Soldaten. Sie schlugen mit Äxten auf die amerikanischen Soldaten ein. Mit schrecklichen Folgen: Captain Arthur Bonifas, Kommandant der Joint Security Force (JSF) und First Lieutenant Mark Barrett wurden getötet.

Drei Tage später fällte eine Task Force aus südkoreanischen und amerikanischen Soldaten die Pappel und liess nur noch einen Stump stehenbleiben. Ein riesiges Aufgebot an Streitkräften (Flugzeugträger, B-52 Bomber, unzählige Helikopter, etc.) waren bereit, bei einer Eskalation einzugreifen. Und die Nordkoreaner beobachteten die Baum Fällaktion, griffen jedoch nicht ein. Die Amerikaner fragten unseren Alternate Armin Widmer, der den abwesenden Delegationschef vertrat, ob sie uns vor der Baum Fällaktion nach Seoul evakuieren sollen, was Widmer verneinte. So erlebte die Schweizer NNSC-Delegation die Aktion vor Ort – ausser mir und dem Chef. Ich war auf Kurier in Japan und bekam von allem nichts mit, bis sie mich in der Schweizer Botschaft in Tokio fragten, was in Panmunjom geschehen sein. Ich wusste von nichts. Damals gab es noch kein Internet, in dem sich solche Ereignisse in Sekundenschnelle über die Welt verbreiten.

Aus dieser schweren Krise wurden die Lehren gezogen: Das UNO-Kommando und Nordkorea unterzeichneten am 6. September 1976 eine Vereinbarung, nach der Militärangehörige beider Seiten auf ihrer Seite der Demarkationslinie bleiben müssen, die in der Mitte des 800 Meter breiten Waffenstillstanddorfes Panmunjom verläuft. Bisher konnten Soldaten beider Seiten sich frei innerhalb der JSA bewegen. Es wurden zudem Betonpfähle zur Kennzeichnung der Demarkationslinie aufgestellt. Der Konferenztisch wurde so aufgestellt, dass die Grenze genau in der Mitte des Tisches verläuft. Die beiden Parteien betreten den Konferenzraum jeweils von Norden und von Süden.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경계 말뚝 및 상호 협정 체결(1976.9.6.)
Grenzpfähle zur Markierung der Demarkationslinie, Unterzeichnung der Vereinbarung vom 06.09.1976

스위스와 스웨덴 중감위 대표단은 종종 미군의 도움을 받았다. 미군은 중감위 대표단이 주말마다 서울에 갈 수 있도록 운전기사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캠프 동료를 제외하고는 주로 유엔군사령부 사람들과 접촉했는데, 이들은 거의 미군들이었다. 다행히도 아름다운 이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어를 몇 마디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후회스럽다. 처음에는 미국인들의 말을 이해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여력이 거의 없었다. 다행히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았다. 우리는 주말에는 보통 서울에서 보냈다. 용산 기지의 숙소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서울 시내와 주변 지역을 둘러본 후에 밤문화를 즐겼다.

이태원에서 미술학을 전공하는 젊은 한국 여학생을 알게 되었는데, 이 만남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나는 용산기지내 마트에서 화장품과 다른 인기 있는 미국 제품들을 사다 주었는데, 이는 당시에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가 없던 물건이었다. 오늘날 K-Pop 열풍, 즉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화장품은 스위스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한국인 친구와 함께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부산, 그리고 용인 민속촌 등 여러 곳을 여행하였다. 겨울에는 용평에서 이틀 동안 스키를 탔는데, 40년 후인 2018년에 이곳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스호스텔 1개와 스키 리프트 2개밖에 없었다. 누가 이곳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이다. 한번은 미국인 친구 3명과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이는 특별한 여행이었다.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Logistisch waren die schweizerische und schwedische NNSC-Delegation von den Amerikanern betreut. Sie stellten uns die Chauffeure zur Verfügung, die uns am Wochenende nach Seoul fuhren. Ausser unseren Haus-Boys hatten wir deshalb vor allem mit den Angehörigen der UN Command Kontakt, und das waren fast ausschliesslich Amerikaner. In unserer Freizeit gab es zum Glück viele Freiräume, in den wir mit der Kultur und Bräuchen dieses wunderschönen Landes in Kontakt kamen. Leider habe ich ausser einigen wenigen Worten die koreanische Sprache nicht erlernt, was ich noch heute bereue. Ich hatte zu Beginn meines Aufenthalts alle Ohren voll zu tun, die Amerikaner zu verstehen. Zum Glück sprachen viele Koreaner auch Englisch. Das Wochenende konnten wir meistens in Seoul verbringen. Im Yongsan-Compound hatten wir unser Wochenendhaus «Brooks», wo wir uns als erstes in zivile Kleider stürzten und anschliessend die Stadt und ihre nähere und weitere Umgebung erkundeten, bevor wir uns ins Nachtleben stürzten.

Im 'I tae won' lernte ich eine junge koreanische Studentin der Kunstwissenschaften kennen. Und diese Begegnung ermöglichte es mir, einen authentischen Einblick in die koreanische Lebensweise und Kultur zu erhalten. Während sie mir viele schöne Orte in ihrer Heimat zeigt, besorgte ich ihr amerikanische Kosmetikprodukte und andere begehrte amerikanische Waren aus dem Supermarkt im Yongsan Compound. Die waren ausserhalb des Compounds nicht erhältlich. Heute haben koreanische Kosmetikprodukte im Kielwasser der K-Pop Welle Hallyu einen exzellenten Ruf und sind in der Schweiz sehr begehrt. Wer hätte das gedacht.

Wir unternahmen zusammen viele Ausflüge: z.B. Bulguksa-Tempel, Seokgoram-Grotte, Gyeongju (ehemaligen Hauptstadt des Silla-Königreichs), Busan, und auch koreanisches Ballenberg-Dorf. Im Winter verbrachten wir zwei Tage mit Skifahren im Dragon Valley 'Yongpyong', wo über vierzig Jahre später im Jahr 2018 die Olympischen Winterspiele stattfanden. Es gab zu dieser Zeit dort eine Jugendherberge und zwei Skilifte. Damals war es unvorstellbar, dass an diesem Ort mit Schotterzufahrt jemals Olympische Winterspiele stattfinden würden! Diese Tatsache zeigt die unglaubliche Entwicklung, die Südkorea in den letzten Jahrzehnten durchgemacht hat.

Eine einmalige Gelegenheit war der Ausflug – im wörtlichen Sinn – nach Cheju Island. Mit drei amerikanischen Freunden mieteten wir eine Cessna 172 und überflogen die Insel im Süden von Korea, bevor wir landeten und der Insel einen Besuch abstatteten.

소형 비행기를 빌려서 한국 남쪽의 제주도 상공을 비행한 후에 제주 공항에 착륙하여 섬을 둘러보았다.

가을에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4일간 지역 탐방을 했다. 한국 공군은 우리를 위해 외빈용 비행기를 준비해 주었다. 24명의 초청명단 중에 스위스 중감위 대표단은 4명이었다. 여행은 김포 공항에서 출발하여 첫날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등산했고, 이후에 대구로 이동하여 울산 조선소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제주도에서 보냈다.

스위스 대표단은 북측의 초청으로 한국 복무 중에 적어도 한 번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다. 나는 귀국 직전인 1977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우르스 펠하우어' 무전병과 북한의 수도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는 정말 독특한 체험이었다. 북한의 모습은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일요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로 옆의 논밭에서 기계 없이 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온통 갈색 풍경이었다. 평양에 도착하자 안내원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동행하였다. 첫날 저녁에는 공식 일정이 없어 호텔에서 나와 안내원과 함께 근처 식료품점에 들어갔는데, 물건들이 거의 없었다. 신선한 농산물도 없었고, 통조림 몇 개만 선반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다음 날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곧바로 위대하고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 동지의 출생지를 방문했다. 조선혁명박물관과 어린이 궁전을 둘러보았고, 무용 공연도 관람했다. 북한에서는 어디에서나 집단이 개인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일성을 둘러싼 북한의 개인 숭배는 박물관 앞에 세워진 금박 동상보다도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북한은 한국 전쟁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과 미국을 침략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 북한군이 한국을 공격하여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고, 이후 미국이 2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 깃발아래 북한에 점령된 남쪽 지역을 탈환한 전쟁이었다. 우르스와 나는 우리를 초청한 북측의 인사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왜냐하면 먼저는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고 싶었고, 또한 그들과의 진정한 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조선혁명박물관 앞의 김일성 동상
Vor dem Revolutionsmuseum

인상 깊었던 점은 공산주의 국가인

Im Herbst wurden wir von der ROK zu einer viertägigen Herbstorientierungsreise durch Südkorea eingeladen. Als Transportmittel stand für uns eine gecharterte DC-4 zur Verfügung. Von den vierundzwanzig eingeladenen Personen waren wir vier aus der Schweizer NNSC Delegation. Die Reise begann am Kimpo-Airport und führte uns am ersten Tag zum Seoraksan National Park zum Wandern. Weiter ging's nach Daegu zu den Ulsan Schiffs-Werften und der Hyundai-Auto-Fabrik. Den letzten Tag verbrachten wir auf der Insel Cheju-do.

Es war üblich, dass alle Mitglieder der Schweizer-Delegation einmal von den Nordkoreanern nach Pyongyang eingeladen wurden. Kurz vor meiner Heimreise reisten Funker Urs Fellhauer und ich in die nordkoreanische Hauptstadt. Das war ein Erlebnis der besonderen Art. Der Kontrast zu Südkorea war immens. Wir reisten an einem Sonntag. Entlang der Strasse sahen wir viele Menschen an der Strasse arbeiten, meist ohne Maschinen. Die Landschaft war braun. In Pyongyang angekommen, begleitete uns ein Führer, der nicht von unserer Seite wich. Am ersten Abend gab es noch kein offizielles Programm, so dass wir einige Schritte aus dem Hotel wagten, und im Beisein unserer Begleitperson einen Lebensmittelladen besuchten. Das Angebot war äusserst dürftig. Fast keine Frischwaren, hingegen einige Konservenbüchsen und leere Regale. Sehr deprimierend. Am nächsten Tag begann das offizielle Programm: Geburtsort des «great and beloved leaders Comrade President Kim Il Sung», Geschichtsmuseum, Children's Palace, eine Tanzvorstellung. Man spürte es überall: Das Kollektiv hat in Nordkorea jederzeit Vorrang vor dem Individuum.

Der Personenkult um Kim Il Sung war allgegenwärtig und noch grösser als seine vergoldete Statue vor dem Museum. In ihrer Geschichtserzählung des Korea-Krieges waren die Amerikaner die Aggressoren, obwohl die Wahrheit ist, dass das kommunistische Nordkorea unter der Führung von Kim Il Sung Südkorea am 25. Juni 1950 angegriffen und fast ganz Südkorea erobert hat, bis die Amerikaner unter der Flagge des UN Command zusammen mit 21 anderen Nationen die Rückeroberung begannen. Urs und ich liessen uns nicht in Diskussionen mit unseren Gastgebern ein. Zum einen, weil wir uns so neutral wie möglich verhalten wollten, zum anderen, weil kein echter Dialog möglich war. Was mir aufgefallen ist: Obwohl Nordkorea als kommunistisches Land von Russland und China politisch und wirtschaftlich unterstützt wurde, haben die Nordkoreaner durchaus Sinn für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질 좋은 제품들에 대한 남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고 폭이 매우 넓은 도로에는 볼보와 벤츠 차량들이 비교적 많이 보였다. 물론 이는 모두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었다.

자유 세계로 돌아오자 마자 스위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작별 인사는 쉽지 않았다. 발터 니펠러 군수장교와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하와이에서 며칠을 보내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휴스턴에서는 NASA 센터를 방문하였고 이후 발터와 헤어졌다. 그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복귀하였고, 나는 버스를 타고 멕시코로 가서 친척들을 만났다. 그리고 2주 후에 나도 무사히 스위스로 귀국하여 학업을 이어 나갔다.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파병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비서가 아닌 부단장 신분으로 복무하고자 했다. 나보다 앞서서, 그리고 뒤이어 복무한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고급간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병 대위로 진급하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계획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중감위 부단장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대위 계급이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나는 한국에서 다시 복무하지 못했고, 이후 거의 50년 동안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나라를 방문하지 못했다. 아마도 지금은 이전에 방문하고 체류하던 곳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예전의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산업 국가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근면한 노력과 오랜 군사독재 이후의 민주화 덕분이다. 나는 언젠가 한국의 평화 통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2025년 6월 베른에서

Qualitätsprodukte. Man sah auf den wenig befahrenen sehr breiten Strassen relativ viele Volvos und Mercedes, natürlich alle im Dienst von Funktionären.

Nach unserer Rückkehr in die freie Welt nahte die Heimkehr in die Schweiz. Der Abschied viel mir schwer. Die Rückreise traten Quartiermeister Walter Nyffeler und ich gemeinsam an. Wir verbrachten einige Tage auf Hawaii und erfuhren aus der Zeitung mit Schrecken von der grössten Flugzeugkatastrophe ohne terroristische Beteiligung, die die Luftfahrt bis heute erlebt hat. Auf dem Flughafen von Teneriffa starben dabei 588 Menschen. Weiter gings für uns nach San Francisco. In Houston besuchten wir das NASA-Center, bevor sich unsere Wege trennten. Walter flog weiter in die Schweiz, während ich meine Reise mit dem Bus nach Mexico fortsetzte, um meine Verwandten zu besuchen. Vierzehn Tage später war auch ich wohl-behalten zurück in meiner Heimat und setzte mein Studium fort.

Ich hatte Pläne für einen zweiten Aufenthalt in Panmunjom, nicht mehr als Assistant Secretary, sondern als Alternate; einige Jahre später, so wie es Kollegen aus der NNSC vor und nach mir auch umsetzten. Diese Pläne waren mit ausschlaggebend für meinen Entschluss, die Zentralschule zu absolvieren und den Hauptmann der Infanterie abzuverdienen. Um als Alternate der NNSC zu dienen, war der Grad des Hauptmanns eine Voraussetzung. Aber der Mensch denkt und Gott lenkt. Meine Wege führten nie mehr nach Korea. Seit fast 50 Jahren habe ich dieses mir lieb gewordene Land nicht mehr besucht. Ich würde es bestimmt nicht wiedererkennen. Es hat sich von einem armen Bauernstaat in eine führende Industrienation entwickelt. Grundlage dafür sind die fleissigen Menschen und die Demokratisierung nach Jahren der Militärdiktatur. Es bleibt mir die Hoffnung, dass ich die unblutige Wiedervereinigung von Korea noch erleben darf.

Bern, im Juni 2025

스위스 군인들의 한국 이야기



Die Geschichte der Schweizer Soldaten in Korea



크리스티안 비르히마이어 Christian Birchmeier

판문점을 기록하다

크리스티안 비르히마이어 / 예비역 대령



1985-1986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근무했고
샤프하우젠에서 교사로 일했다.

한국에서 중립국감독위(이하 중감위)로 복무한 고향 선배 장교들이 유일무이한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경험해 볼 것을 권했다. 영국에서 3개월 간의 어학연수를 마친 후, 나는 가족과 직업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바젤과 프랑크푸르트, 뉴욕,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도쿄를 경유한 일주일의 여정 끝에, 내 삶의 일부를 장식하게 될 판문점에 도착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별한 분위기,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로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휴전선 바로 옆에 위치한 캠프에서의 생활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거의 매일 다른 3개국 대표단(스웨덴, 폴란드, 체코)과 한국, 북한, 중국, 그리고 유엔군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고, 나의 시야를 넓혀 주었다. 파란색 군복를 입은 중감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 대표들이 공동경비구역에서 평화롭게 만나는 장면은 언제나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장면들은 남북한이 1953년 이후 얼마나 깊게 분단되었는지 인식하게 만들었다.





판문점 중감위 주간 회의(1985년) 및 파울 오버리 요리사와 카우프만 대령, 비르히마이어 중위(1986.4월)
Wöchentliche Sitzung in Panmunjom (1985) und Paul Oberli, Oberst A. Kaufmann, Oblt Birchmeier (April 1986)

Berichten über Panmunjom

Christian Birchmeier / Oberst(ret.), Neutrale Überwachungskommission

In den Jahren 1985-1986 war er Mitglied der NNSC in Korea.
Er war tätig als Lehrer in Schafhausen.

Aus dem Kanton Schaffhausen waren vor mir schon einige befreundete Offiziere in dieser Mission tätig gewesen. Sie waren es, die mich auf die einmalige Chance aufmerksam machten und mich dazu animierten. Weder beruflich noch familiär gebunden, entschloss ich mich (nach einem 3 monatigen Sprachaufenthalt in England) dieser Herausforderung zu stellen. Die Hinreise dauerte eine Woche und brachte mich via Basel-Frankfurt, New York, Los Angeles, Hawaii und Tokio nach Südkorea und Panmunjom, dem Land, das ein Teil meines Ichs werden sollte. Korea, das «Land der Morgenstille», mit seiner beeindruckenden schönen Natur-landschaft, einer speziellen Atmosphäre und den liebenswürdigen Menschen haben in mir einen unauslöschlichen Eindruck hinterlassen.

Das Leben im Swss Camp in Panmunjom, direkt an der Waffenstillstandlinie gelegen, hat mich sehr geprägt. Der fast tägliche Kontakt mit Offizieren aus den anderen 3 NNSC Delegationen (Schweden, Polen, CSSR), aus Süd- und Nordkorea, mit chinesischen Offizieren und Offizieren der UNO Streitkräfte waren äusserst interessant und horizonterweiternd. Eindrücklich jeweils das friedliche Zusammen-sein mit Vertretern aus Süd- und Nordkorea im Beisein der Neutralen in den blauen Bracken in der JSA. Dies im Bewusstsein, dass Korea seit 1953 so tief gespalten und getrennt ist.

Damals erhielten sie 4 neutralen NNSC Delegationen jeweils einmal im Jahr noch Gelegenheit, an Reisetouren in Süd- und Nordkorea teilzunehmen. Die (zum Teil schmerzlichen) Unterschiede dieser Länder konnte eindrücklicher nicht sein. Der

당시 4개국 중감위 대표단들은 매년 4번 남북한을 여행할 기회를 가졌다. 극명하게 다른 두 나라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군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부산에서 열린 장교 진급식에도 참석했다. 또한 여러 역사문화 유적지들을 답사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에서 방문한 시장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단연코 봄과 가을이 압도적이다.

나는 샤프하우젠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후 초등교사 양성교육을 받았다. 80년대 중반에는 취리히연방공대에서 지리학과 지질학을 전공하였고 취리히대학에서 역사학을 추가 전공하며 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샤프하우젠 고등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했다. 박사 과정을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중감위로 복무하고자 중단하였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는 취리히대학에서 2년간 법학과 경제학, 경영학을 수학하였다. 샤프하우젠에서 25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면서 역사와 지리, 군사사 관련 저서들을 다수 출판했는데, 이중에 일부는 실제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군에서는 제16포병대대와 제6포병연대 참모부에서 복무했고 새로운 군개혁 추진과 더불어 군사편찬연구소로 전출되었다. 이후 여러 직책을 거쳐 대령으로 진급했다.

베른의 귀장플라츠 군사도서관에 한국 자료실을 만들어 문서들과 사진들을 전시하였다. 이곳에는 중감위 대표단 출신 장교들의 개인 파일과 문서, 서신, 일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50명이 넘는 중감위 근무자들이 1953년부터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문서와 파일을 기증하였다. 특히 판문점에서 1956년부터 1986년까지 30년간 스위스 대표단 요리사로 복무했던 '파울 오버리'에 관한 자료들은 '한국 자료실'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중국 연락장교와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중감위 장교(1986년 봄)
Chinesischer Verbindungsoffizier und schwedischer, polnischer, Schweizer NNSC Offizier in JSA (Frühjahr 1986)

Besuch von militärhistorischen Stätten in Südkorea, die Teilnahme an einer Offiziersbeförderung in Pusan und viele persönliche Besuche von kultur-historischen Orten und die Märkte in Seoul blieben mir speziell in Erinnerung. Die Schönheit Südkoreas war überwältigend, speziell die Zeit im Frühling und Herbst.

Nach dem Besuch der Primar-, Sekundar- und Kantonsschule (Gymnasium) in Schaffhausen liess ich mit zum Primarschullehrer ausbilden. Mitte der 1980iger Jahre schloss ich meine darauf folgenden Studien in Geographie, Geologie (an der ETH) und Geschichte an der Universität Zürich als diplomierter Geograph ab. Am Gymnasium in Schaffhausen war ich als Lehrer mit Teilzeitpensum angestellt, dies im Rahmen der Ausbildung zum Gymnasiallehrer. Meine begonnene Doktorarbeit habe ich nach dem Entschluss nach Korea zu gehen, sistiert. Nach meiner Rückkehr studierte ich noch 2 Jahre Recht, Volks- und Betriebswirtschaft an der Universität Zürich. Dies im Rahmen der Ausbildung zum Berufsschullehrer für Allgemeinbildung. Danach war ich über 25 Jahre als Lehrer an der Berufsschule Schaffhausen tätig (im gleichen Schulhaus, wo mein Zwillingsbruder unterrichtete). Nebenbei publizierte ich viele historische, geographische und militärhistorischen Arbeiten, z.T. in Form von eigentlichen Büchern. Im Militär war ich als Hauptmann im Stab der Artillerie Abteilung 16 und dann als Major im Stab des Artillerie Regiments 6 tätig. Mit der neuen Armeereform erfolgte dann die Umteilung in den Armeestab zum militärhistorischen Dienst. Es folgten diverse Besuche militärischer Weiterbildungen, die mir letztlich den Grad eines Obersten brachten.

In der Bibliothek am Gusianplatz in Bern richtete ich das neu geschaffene Korea-Archiv ein. Dort werden von ehemaligen Delegationsmitgliedern der NNSC die persönlichen Akten, Dokumente, Briefe, Tagebücher, Fotos und Filme aufbewahrt. Schon weit über 50 ehemalige Mitglieder haben ihre persönlichen Dokumente und Akten dort abgegeben. Sie decken die Zeit von 1953 bis heute ab. Speziell die Sammlung von WO 4 Paul Oberli, der von 1956 bis 1986 30 Jahre lang Koch der Camp Offizier der Schweizer NNSC Delegation in Panmunjom war, bildete dabei ein wichtiger Kern des Archivs.

In dieser Zeit habe ich auch die reich illustrierten Sonderbeilagen der ASMZ (Allgemeine Schweizerische Militärzeitschrift) zum 50 Jahr Jubiläum (2003) und 60 Jahre Jubiläum (2013) als Redaktor und Mitautor publiziert. Die 160 Seiten umfassende, illustrierte «Quellensammlung zur Geschichte der Schweizerischen und

이 기간 동안에 군사저널에 스위스 중감위 파병 50주년(2003)과 60주년(2013) 기념 특별호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003년 집필된 160쪽 분량의 "스위스 및 폴란드 중감위 대표단의 한국 근무 역사 자료집"은 양국 대표단의 공문서와 개인적인 자료들을 수록하였고 폴란드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제7보병여단 참모부에서 마지막 군복무를 수행하면서 여단의 역사를 기념 출판물로 기록하였다. 이후 판문점 복무기간을 제외한 총 1500일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65세에 전역했다.



한국 재방문시,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1998년)
Anlässlich seines Besuches bei der Bridge of no return (1998)

1998년과 2013년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 특히 2013년은 중감위 파병 60주년이 되는 해였고, 한국은 내가 복무했던 시절과 비교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화되었지만 한국의 아름다움과 분위기, 그리고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친애하는 한국 친구 여러분,
부디 민주주의와 자유, 안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켜 나가 주십시오.
이러한 가치들은 스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아름답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스위스는 비록 소규모 대표단이었지만
항상 한국에 상주하며 한반도의 안정에 기쁜 마음으로 기여하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요.
이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간직합시다!"

2025년 5월 샤프하우젠에서

Polnischen NNSC Delegationen in Panmunjom – Korea» (2003) mit Kopien von offiziellen und privaten Dokumenten aus den beiden Delegationen (auch übersetzt ins Polnische) ergänzen meine Publikationen zur NNSC in Korea.

Nach einer letzten Umteilung in den Stab der Infanteriebrigade 7, deren Geschichte ich in Form einer Festschrift zu schreiben hatte, wurde ich mit 65 Jahren nach 1500 Militärdiensttagen (ohne Korea-Zeit) aus der Schweizer Armee entlassen. Im Lehrerberuf erreichte ich das Pensionsalter.

Ich war noch zweimal in Südkorea: 1998 und 2013, dem Jahr der 60 Jahrfeier der NNSC. Korea hat sich seit 1986 enorm weiterentwickelt, vieles wurde neu gebaut, vieles hat sich verändert. Die Schönheit, die Atmosphäre und die Liebens-würdigkeit jedoch sind geblieben.

„Bewahren Sie, liebe Korea-Freunde,
die Demokratie, Freiheit, Sicherheit und letztlich auch den Frieden.
Diese Werte sindes, wie in der Schweiz, die uns verbinden
und den Garant für eine gute, sichere und friedliche Zukunft bilden.
Und vergessen Sie dabei nicht, dass die Schweiz
seit dem 1953 in Panmunjom unterzeichneten Waffenstillstand in Südkorea
mit ihrer zwar kleinen Delegation immer vor Ort war,
dadurch zur Stabilisation der (Waffenstillstand-) Lage gerne beitrug
und sich dadurch eine enge Verbindung und Beziehung zwischen unseren
Nationen gebildet hat. Tragen wir dieser Sorge! „

Schaffhausen, Mai 2025

스위스 군인들의 한국 이야기



Die Geschichte der Schweizer Soldaten in Korea



우르스 뮐러 Urs Müller

나의 한국 이야기

우르스 뮐러 / 예비역 대령



1994-1996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근무했고
베른대학교와 스위스 은행(UBS)에서 일했다.

취리히대학에서 역사와 영어, 고생물학을 전공하고, "스위스 말(馬)의 기원과 역사" 논문으로 학업을 마친 후에 취리히와 베른, 그리고 영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군에서는 제3산악보병군단에서 화생방 전문가이자 체육 및 산악 장교로 1,000일 이상을 복무했다.

초등학교 시절에 미국 군사 사학자 마셜의 책, 『한국에서의 마지막 전투들』에 관심이 있었다. 당시 고트하르트 보병중대장을 역임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4주간의 재소집 군복무를 마치고 이 책을 집에 가지고 오셨다. 아버지는 취리히연방공대 출신의 공학도이자 스위스군 최초의 화생방 장교이기도 하셨다. 불교 철학과 이미 15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한글 문자를 가진, 스위스에서 거의 1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 나의 상상력을 넘어선 일이었다. 나이 어린 스위스 사람으로 내가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작은 알프스 산악지역을 게르만족과 라틴 열강의 지배로부터 지켜내야 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 산악지역을 지켜내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는 내가 먼 훗날에 전쟁으로 분단된 멀리 떨어진 한국에 가서 2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은 우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걸프전 이후인 1991년 이라크는 유엔결의안 687호에 따라 화학 무기의 비축량을 신고하고 폐기해야만 했다. 스위스군의 슈피츠 화생방 연구소는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제네바 의정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랫동안 화생방부대에서 근무했고, 당시 제23요새여단 화생방부대장을 역임하던 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라크 파병 임무에 지원했다. 하지만 민병 장교였던 나는 경력이 많은 직업 군인에게 기회를 양보해야 했다. 1994년 말 전임 상관이 이끌고 있던 스위스 평화유지군에서 한국 주둔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이후 중감위) 대표단의 부단장을

Meine Geschichte in Korea

Urs Müller / Oberst (ret.), Neutrale Überwachungskommission

In den Jahren 1994-1996 war er Mitglied der NNSC in Korea.
Er war tätig an der Universität Bern und bei UBS AG.

Nach Studien in Geschichte, Englisch und Paläontologie an der Universität Zürich mit abschliessender Dissertation zur «Genese und Geschichte des Pferdes in der Schweiz» arbeitete ich im Lehrberuf an höheren Bildungsanstalten in Zürich, Bern und North Devon GB. Ich leistete ich als Milizoffizier über 1000 Diensttage im Gebirgsarmeekorps 3 im ABC-Schutzdienst sowie als Sport- und Alpinoffizier.

Bereits in der Primarschule interessierten mich die Berichte des US Militär-historikers S.L.A. Marshall über «die letzten Kämpfe in Korea», die mein Vater, damals Kommandant einer Gotthard-Mitrailleurkompanie und als Ingenieur ETH einer der ersten ABC-Offiziere unserer Armee, nach seinen 4-wöchigen Wieder-holungskursen mit nach Hause brachte. Das fast 10'000 km entfernte Korea mit seiner buddhistischen Philosophie und dem bereits Mitte des 15. Jahrhunderts erschaffenen Hangul-Alphabet lag aber damals ausserhalb meines Vorstellungs-vermögens. Das Einzige, was ich als junger Schweizer begriff war die Tatsache, dass auch die Koreaner ihre gebirgige Halbinsel in ihrer Brückenfunktion zwischen den chinesischen und japanischen Völkern verteidigen und offenhalten müssen, wie wir unser kleines Alpenland gegen die Dominanz der germanischen und lateinischen Herrenländer zu behaupten haben. Ich hätte es mir aber nie erträumen lassen, eines Tages in das ferne, leider durch den Krieg geteilte Korea reisen und dort während zweier Jahre im dienste des Friedens arbeiten zu dürfen.

Wie so oft in der Geschichte sollte der Zufall auch in dieser Angelegenheit eine wegweisende Rolle spielen. Als 1991 nach dem Golfkrieg der Irak durch die UNO-

선발하고 있을 때, 드디어 내게도 평화 임무를 위한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를 위해 베른대학교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그만두었다. 이후 여행 가방이 아닌, 군용 가방을 싸서 처음으로 유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미국 항공기를 이용하여 워싱턴과 솔트레이크 시티, 그리고 시애틀을 경유하여 김포로 향하는 여정이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여행 중에는 사복을 입어야 했고, 기타와 운동복을 기내 수하물에 넣어서 가져왔다. 이 두 가지 개인 소지품은 판문점 비무장지대의 고립된 환경에서 2년간 생활하는 동안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판문점 스위스 캠프, Schweizer NNSC-Camp in Panmunjom

북위 38도에 위치한 판문점의 스웨덴-스위스 중감위 합동 캠프는 마치 멸종 위기종의 보호구역과 같았다. 4미터 높이의 철조망과 약 400미터 길이의 참호로 둘러싸인 숙소와 휴게 시설, 물자 보관소는 모래주머니로 둘러 쌓인 작은 비상 벙커 주변에 밀집되어 있었다. 5명의 스웨덴 직업 장교들과 5명의 스위스 민병 장교들은 15명의 성실한 한국 고용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용 텐트로 약 20만개를 제작한 '미군용 퀀셋 막사'에서 보낸 첫날 밤에 이미 판문점은 결코 방해받지 않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대한 북한 확성기에서 선전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간간이 전쟁 보도가 이어졌으며, 한 시간마다 '김일성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이 멜로디는 몇 달 동안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스웨덴 동료들이 이와 관련된 한가지 일화를 들려주었다. 스웨덴 중감위 단장의 부인이 남편이

Resolution 687 verpflichtet wurde, die Chemiewaffenbestände zu deklarieren respektive zu vernichten, hatte unser Armeelabor in Spiez/Bern von 1984 bis 1994 eine wichtige Rolle bei der Durchsetzung des Genfer Protokolls inne. Als langjähriger Angehöriger der ABC-Truppen und Chef ACSD in der Festungsbrigade 23 meldete ich mich damals für den dafür vorgesehenen Einsatz im Irak, hatte aber als Milizoffizier den routinierteren Berufsmilitärs den Vortritt zu lassen. Als auf Ende 1994 die Stelle des «Alternate Member» in der Schweizer Korea mission durch das Bundesamt für Adjutantur unter der Leitung von meinem ehemaligen Stabschef neu besetzt werden musste, wurde mir die Chance für einen Friedens-Einsatz gegeben, die ich nicht ungenutzt verstreichen lassen wollte. Ich beendete meine Anstellung an der Universität Bern. Ich packte die Militärkoffer und startete meine erste UN-Dienstreise, die mich mit US-Airlines über Washington, Salt Lake City und Seattle nach Kimpo führte. Aus Sicherheitsgründen reiste ich in Zivil, im Handgepäck nahm ich meine akustische Gitarre und Jogging Ausrüstung, beides persönliche Utensilien, die im Verlaufe meiner zweijährigen Dienstzeit in der Abgeschiedenheit der demilitarisierten Zone von Panmunjom noch eine wichtige Rolle spielen sollten.

Mein Dienstort im Swedish-Swiss-Camp NNSC in Panmunjom am 38. Breitengrad ähnelte einem Reservat für vom Aussterben bedrohte Tierarten: durch einen 4 Meter hohen Stacheldrahtzaun hermetisch abgeriegelt, mit einem 400 m langen Graben umrandet, lagen die Unterkunfts-, Freizeit- und Logistikbaracken gruppiert um einen kleinen, mit Sandsäcken verstärkten Not-Bunker. Fünf schwedische Berufs- und fünf schweizerische Milizoffiziere wurden täglich in ihrem Dienst tatkräftig unterstützt durch 15 fleissige koreanische Angestellte, die ihrem Job diskret und untadelig nachkamen.

Bereits in der ersten Nacht in meiner «US-Quonset Hut» (die USA produzierten im II. Weltkrieg rund 200'000 solcher Wellblechunterkünfte für die Armee) wurde ich konfrontiert mit dem Umstand, dass wir in Panmunjom nicht ungestört waren: aus riesigen nordkoreanischen Lautsprechern dröhnte permanent Propagandamusik, unterbrochen durch Kriegs-reportagen und stündlich abgerundet durch den «Kim il Sung Marsch», der im Laufe der Monate zum Ohrwurm mutieren sollte. Dazu folgende Anekdote der schwedischen Kollegen: Die Gattin des Delegationschefs hörte ihren Ehemann in der Dusche den Kim il Sung Marsch summen und stellte ihn darüber zur Rede. Lachend gab er zu, nach zehn Monaten im Unter-

샤워하면서 김일성 행진곡을 흥얼거리는 것을 듣고 이에 대해서 추궁하자, 단장은 웃으면서 "10개월 동안 무의식 중에 세뇌되었다."고 인정했다고 전하면서, 아마도 6년째 근무중인 스위스 중감위 단장은 이미 스스로를 김일성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를 것이라고 농담삼아 이야기했다.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르의 개성 넘치는 음악이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인들이 아시아의 이탈리아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주말에 클래식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를 관람했는데, 공연 시작 전에 나눠주는 악보와 가사를 따라 부르는 관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했다. 다소 경직된 스위스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다. 비틀즈 팬이었고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나에게 음악은 매우 중요했다. 크리스마스에 캠프 동료들을 위해 몇 차례 작은 콘서트를 열었던 나는 바젤 출신의 전직 카니발 드러머와 함께 악기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서울의 중고품 가게에서 드럼세트와 앰프, 그리고 한국 방송 오케스트라 단원에게서 일렉 기타를 구입했다.



판문점의 중감위 캠프 스위스 클럽에서 음악 연주(1995)
Panmunjom, NNSC-Camp beim Musizieren im Swiss Club (1995)

이후 몇 달 동안, 우리는 'PPB(판문점 선전 밴드)'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클럽에서 수 차례 저녁 공연을 가졌고, 특히 야외에서의 공연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영국식과 미국식 팝음악의

bewusstsein etwas indoktriniert worden zu sein und fügte an, «der seit sechs Jahren in Panmunjom stationierte Schweizer General sei bereits im Glauben, selber Kim il Sung zu sein…».

Ein ganz anderes Genre individuell gestalteter Musik spielt dagegen im Alltag Südkoreas eine wichtige Rolle und zu Recht werden seine Einwohner auch die «Italiener Asiens» genannt. Bei meinen Besuchen von klassischen und modernen Konzerten an freien Wochenenden konnte ich stets die Begeisterung der Zuhörer miterleben, die dank der jeweils zu Beginn der Veranstaltung verteilten Musiknoten und -texten aktiv mitsangen – für uns etwas «steifen» Schweizer ein sehr positives Novum. Musik war auch für mich als Beatles-Fan der Sechzigerjahre und Amateur-Musiker ein zentrales Element. Nach ersten kleinen «Konzert» an Weihnachten für alle Lagerbewohner entschloss ich mich zusammen mit einem Delegationskollegen aus Basel (ehemaliger Karneval-Tambour) musikalisch aufzurüsten: Im Second-handshop in Seoul kauften wir noch ein komplettes Ludwig-Schlagzeug, Fender Verstärker und von einem Musiker des Korean Broadcast Orchestra eine elektrische Gibson Les Paul Gitarre.

In den kommenden Monaten spielten wir unter dem Namen «Panmunjom Propaganda Band», PPB, an vielen Abenden im Swiss Club und, darauf waren wir besonders stolz, im Camp unter freiem Himmel. Unsere Popmusik englischer und amerikanischer Prägung rundeten wir ab mit koreanischen Songs e.g. von Roh Young Sim oder Park Sang Minh. An erster Stelle stand aber das beliebte Volkslied «Saranghae Dang Shin Ul» dessen melancholische Melodie und Worte mich bis heute in Gedanken immer noch begleiten. Eines Abends, als wir bis in alle Nacht im Freien mit voller Lautstärke spielten, telefonierte uns der US Kommandant von Camp Bonifas und bat uns «leiser zu sein, da seine Patrouillen», die sich in der Gemeinsamen Sicherheitszone um unser Lager bewegten, «untereinander nicht mehr richtig kommunizieren könnten». Seinem Wunsch entsprachen wir gerne. Entscheidend für uns war vor allem die Tatsache, dass wir der nordkoreanischen Propagandamusik etwas Ebenbürtiges entgegenzusetzen hatten.

Sport im Allgemeinen und Langstreckenlauf im Speziellen spielte als Ausgleich zu meiner universitären Tätigkeit immer eine zentrale Rolle. In der Schweizer Armee hatte ich zudem als Sport- und Alpinoffizier die Aufgabe, junge Armeeangehörige in Sommer- und Wintergebirgskursen für die Wettkämpfe auszubilden bzw. zu

마무리는 박상민 또는 노영심의 한국 노래였다. 한국 노래 중에서도 애절한 멜로디와 가사를 가진 "사랑해 당신을" 이라는 대중가요는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밤늦도록 밖에서 연주하고 있을 때, 보니파스 기지의 미군 사령관이 우리에게 전화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공동경비구역의 기지 주변을 순찰하는 부대들이 서로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이유였고, 우리는 기꺼이 그의 요청을 수용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선전 음악에 맞설 만한,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음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었다.

스포츠, 특히 장거리 달리기는 나의 대학 생활에서도 항상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군에서 체육 및 산악 장교로 복무할 때, 여름과 겨울철 재소집 산악교육에 입소한 젊은 병사들을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도록 격려하고 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수많은 군장 구보 마라톤, 100km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꾸준히 수행했다. 서울 용산기지와 판문점은 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울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는 주말에 유엔사령부에서 주최하는 '해시런' 대회에 참가했다. 아름다운 강남 도심지역을 약 6km 달리는 행사는 보행자의 시각에서 수도 서울을 가장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판문점 중감위 캠프에 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운동장은 중감위 대표단에게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체단련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유엔군이 군사분계선 외곽에 만든 하드코트에서 열리는 테니스 경기가 인기가 많았다. 이곳 판문점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이 아니라, 스웨덴과 스위스 장교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평일 캠프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매일 아침 6시에 한국 출입통제소에 가서 "한국" 이라는 인사말로 신고를 하고, 이후 45분간 비무장지대 입구에 있는 보니파스 캠프까지 6km를 왕복으로 달리는 마라톤 연습을 하였다. 이때 4개 회원국의 색깔로 된 중감위 완장을 눈에 띄게 착용했다. 혼자 달리면서 한국이 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관개된 논밭 위로 부드러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고 봄에는 산비탈에 진달래가 만발하고, 회색 기러기와 두루미는 마치 평화의 사자처럼 모든 국경과 장애물을 무시한 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른 아침에 열기구에 실려 논밭 위에 뿌려진, 수령인(대개는 군인)을 기다리는 선전용 전단지가 낯선 물건처럼 보였고 남북한의 고조되는 갈등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마라톤 경력의 하이라이트는 1995년 9월 초에 서울에서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강원도 설악산에서 열린 국제 산악 마라톤 대회였다. 총 42.195km의 산악 코스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로지르며, 해발 1,708m의 설악산을 오르는 코스였다. 오르막길만큼이나 힘들었던 것은 섭씨 28도의 무더위였다. 그러나 나는 3시간 14분 만에

motivieren. Um mit gutem Beispiel voranzugehen, nahm ich an zahlreichen Waffen-, Marathon- oder 100 Kilometerläufen teil. Voraussetzung dazu war allerdings die Einhaltung eines intensiven Wochentrainings. Aus diesem Grund war es für mich essentiell, dieses Prozedere auch in Korea weiter durchziehen zu dürfen. Die Voraussetzungen dazu waren sowohl in der US-Jongsan Base in Seoul als auch in unserem Camp in Panmunjom gegeben. An meinen freien Wochenenden in Seoul nahm ich an den vom UNC organisierten «Hash-Runs» teil, die jeweils rund 6 km durch das schöne Stadtviertel Gangnam führten und uns die Hauptstadt Südkoreas von ihrer schönsten Seite aus der Sicht des Fussgängers präsentierte.

Diverse sportliche Trainings- und Spielplätze im NNSC Camp in Panmunjom boten den Delegationen bei jeder Jahreszeit und Witterung die Möglichkeit, sich einzeln oder gemeinsam der körperlichen Ertüchtigung hinzugeben. Besonders war beliebt das Tennisspiel auf dem ausserhalb des Camps situierten Hard-Court, der vom UNC direkt an der militärischen Demarkationslinie angelegt worden war. Es war fast kafkaesk anmutend: Hier duellierten sich nicht Nord- und Südkoreaner, sondern Schweden und Schweizer in friedlicher Manier.

Während der Arbeitswoche im Camp startete ich meine 45-minütigen Trainingsläufe jeweils um 06:00 Uhr mit der Abmeldung (Begrüssungsparole «Hanguk») bei unserer koreanischen Eingangskontrolle, um anschliessend die 6 km lange Teerstrasse durch die Reisfelder zum Camp Bonifas am Eingang zur Demilitarisierten Zone und wieder zurück zu joggen. Zu diesem Anlass trug ich gut sichtbar meine NNSC-Armbinde in den Farben der vier Mitgliedländer. Alleine unterwegs wurde mir erst so richtig bewusst, warum Korea auch als das «Land der Morgenstille» bezeichnet wurde: Ein sanfter Schleier lag über den bewässerten Reisfeldern, an den Hängen blühten im Frühling die Azaleen und am Himmel zogen Graugänse und Kraniche wie Friedensboten ihres Weges – alle Grenzen und Hindernisse ignorierend. Wie Fremdkörper und Zeugen eines schwelenden Konfliktes wirkten dagegen die mit Heissluftballons verfrachteten Propagandaflugblätter in den Reisfeldern, die in aller Frühe noch auf einen «Abnehmer» – meist Militärpersonal – warteten.

Höhepunkt meiner läuferischen Aktivitäten bildete Anfang September 1995 der Internationale Soraksan Marathon in der Provinz Gangwon im Osten Südkoreas, 2 ½ Autostunden von Seoul entfernt. Die 42.195 km lange Bergstrecke führte um den 1708 m hohen Berg Sorak herum durch die Naturschönheiten des gleichnamigen

결승선을 통과했고, 45세 이상의 중년부에서 3위를 차지했다. 동메달과 함께 당시 최첨단인 삼성 애니콜 휴대폰을 상품으로 받았는데, 이는 스위스로 돌아와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



설악산 국제산악마라톤 대회 기념 티셔츠 및 3등 수상 메달(1995.9.3.)
Soraksan Internationaler Berglauf, Urs Müller, 3. Rang (3. September 1995)

1995년 4월 초에 스위스에 있던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서울 용산 기지에 있는 숙소와 그곳에서 53km 떨어진 판문점 숙소에 머물렀다. 김포 공항을 오가는 교통편과 서울과 판문점 사이의 모든 운송은 미군 소속의 믿음직한 운전기사가 능숙하게 담당해 주셨다. 이 기회를 빌려 미국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들의 경비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등, 항상 중감위 대표단의 안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유럽인들에게는 많이 낯선 한국을 짧게 여행했지만, 가족들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동시에 자라는 숲들과 논, 인삼밭, 채소밭이 군사 바리케이드와 감시 초소, 군용 팻말이 번갈아 나타났다. 때로는 전쟁의 그림자가 여전히 도처에 드리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불고기와 밥,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과 자정 넘어서까지 문을 여는 상점들, 특히 고급 가죽제품 가게들이 즐비한 이태원은 정말 즐거운 곳이었다. 금발의 아이들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는 현지인과의 교류도 새롭고 깊은 감동을 주었다.

스웨덴 중감위 대표단과 다르게, 스위스 대표단은 아쉽게도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올 수가 없었다. 한국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언어 환경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한국 사람들과 사회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말이다. 이는 분명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한국과의 개인적인 유대감도 생기게 했을 것이다.

Nationalparks. Mehr als die Steigungen machte mir die Temperatur von 28 Grad Celsius etwas zu schaffen. Schliesslich erreichte ich das Ziel nach 3 Stunden und 14 Minuten, was in der Kategorie über 45 Jahre zum dritten Schlussrang reichte. Neben der Bronzemedaille erhielt ich als Geschenk ein für die damalige Zeit hyper-modernes Samsung-Tastentelefon, das mir in der Schweiz gute Dienste leistete.

Anfangs April 1995 besuchte mich meine Familie in Korea und wohnte sowohl in Seoul in meinem Haus auf der Yongsan Base als auch in meiner Unterkunft im 53 km entfernten Panmunjom. Der Transfer von und zum Flughafen Kimpo sowie sämtliche Transporte zwischen Seoul und Panmunjom wurden von meinem treuen Fahrer, ein Angehöriger der US-Armee, in vorbildlicher Weise sichergestellt. An dieser Stelle sei dankend eingeflochten, dass die USA sämtliche Kosten der NNSC-Delegation in grosszügiger Weise übernimmt und für unser Wohlergehen (bspw., mittels einer hervorragenden medizinischen Versorgung) stets bemüht ist.

Die kurzen Reisen durch das für uns Europäer unbekannte Land machten meiner Familie und mir einen tiefen Eindruck: Mischwälder, Reisfelder, Ginseng oder Gemüse-Plantagen wechselten sich ab mit militärischen Sperranlagen, Leucht-schriften, Beobachtungsposten. Manchmal hatte man das Gefühl, der Krieg sei noch allgegenwärtig. Für meine Familie faszinierend war in Seoul der Besuch des Stadt-viertels Itaewon mit seinen Restaurants, die uns koreanische Spezialitäten wie e.g. Bulgogi, Reis und Kimchi servierten sowie die bis nach Mitternacht geöffneten Geschäfte, unter denen uns besonders die exquisiten Lederboutiquen ins Auge stachen. Auch die Erfahrung mit Einheimischen, die unseren blonden Kindern immer wieder zärtlich übers Haar strichen und ein paar freundliche Worte mit ihnen wechselten, war für uns neu und berührte uns zutiefst.

Im Gegensatz zur schwedischen NNSC-Delegation war es uns Schweizer Militär-angehörigen leider nicht erlaubt, mit unseren Angehörigen in Südkorea Dienst zu leisten. Nach meinen positiven Eindrücken, die ich im Verlaufe meiner zweijährigen Dienstzeit in Südkorea gewinnen konnte, bedauere ich diesen Um-stand sehr. Gerne hätte ich es meiner Frau und den beiden Kindern ermöglicht, ein neues kulturelles und sprachliches Umfeld zu erschliessen und soziale Kontakte zu pflegen. Für ihre weitere Ausbildung und zukünftige Tätigkeit hätte ein solches Unterfangen mit Sicherheit einen grossen Gewinn dargestellt und die persönliche Verbundenheit mit Korea gefestigt.

한국 파병은 무엇보다 '평화유지활동' 이라는 핵심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스위스는 국경 마을이 연합군으로부터 독일 땅이라고 오판하여 폭격 받은 것 외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모두에서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민병 장교였던 나는 한국으로 파병되기 전까지 전혀 해외 전쟁터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중감위 대표로서 나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은 다른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단들과 함께 남북한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판문점에 주둔하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와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 그리고 중국은 모두 4개국 중감위 대표들이 그들의 군사적인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다.



서울 용산기지에서 촬영한 가족 사진(1995)
Seoul, in Yongsan Base mit der Familie (1995)

당시 스위스 외교정책의 강점 중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처럼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Good Offices' 역할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북측과의 접촉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1994년 9월 28일 판문점에 도착한 직후,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고위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판문점 대표부 수장인 리찬복 북한 중장이 떠나는 스위스 장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리권 소령의 통역 하에 이루어진 이 비공식적인 대화는 결국 '스몰 토크'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북한의 홍수 상황과 같은 민감한

Natürlich steht unser Einsatz in Korea in erster Linie unter dem Leitmotiv der «friedenserhaltenden Massnahmen». Schweiz blieb sowohl im I. als auch im II. Weltkrieg mit Ausnahme alliierter Bombardierungen einzelner Grenzstädte von kriegerischen Ereignissen verschont. Als Milizoffizier hatte ich bis zu meinem Einsatz in Korea auch keinerlei Erfahrungen in fremden Kriegsgebieten sammeln können. In meiner neuen Rolle als neutraler Beobachter des seit 1953 geltenden Waffenstillstandes an der Demarkationslinie zwischen Süd- und Nordkorea in Panmunjom kamen unseren schwedischen Kollegen und uns die Aufgabe zu, Flagge zu zeigen, respektive im Krisenfall Präsenz zu markieren. Beide Seiten, einerseits das United Nations Command unter US-Führung, anderseits die Demokratische Volksrepublik Nordkorea sowie das Kommando der chinesischen Freiwilligenarmee hatten stets der Tatsache Rechnung zu tragen, dass ihre militärischen Aktivitäten der Überwachung durch die neutralen Kommissionsmitglieder unterliegen.

Eine der Stärken der damaligen Schweizer Aussenpolitik stellten die «Guten Dienste» dar, die in Krisensituationen Gespräche zwischen verfeindeten Parteien vermittelten wie e.g. solche zwischen dem Iran und den USA. Eine Kontaktnahme mit der nordkoreanischen Seite gestaltete sich im Verlaufe meiner Dienstzeit leider immer schwieriger. Kurz nach meiner Ankunft in Panmunjom, am 28.09.1994, hatte ich noch die Gelegenheit, einen hohen nordkoreanischen Vertreter in der JSA zu treffen: Der nordkoreanische Dreisterne-General Li Chan Bok, Chef der Panmunjom Mission, verabschiedete sich damals von unserem «Outgoing Member». Das informelle Gespräch verlief über den Dolmetscher Major Li Gwon schleppend und beschränkte sich auf «small talk»; Fragen e.g. zu den aktuellen Überschwemmungen im Norden blieben unbeantwortet. In der Folge wurden die Kommunikationskanäle zwischen dem Norden und Süden immer mehr beschnitten: Nachdem die Tschechische Delegation als Vertreterin Nordkoreas am 3. April 1993 Panmunjom verlassen musste, ereilte die polnischen Delegierten am 4. März 1995 das gleiche Schicksal. Als «ActingMember» hatte ich die fällige Protestnote der NNSC-Süd abzufassen und an GLT Li weiterzuleiten, was ein Ding der Unmöglichkeit schien, da die Nordkoreaner ihre «pigeon hole» in der JSA nicht mehr leerten. Aus diesem Grunde war ich gezwungen, mich auf die Nordseite zu begeben und an die Türe des Panmungak zu klopfen. Im Tor erschien LTC Lee, der sich zuerst aber weigerte, das an seinen Chef adressierte Schreiben entgegenzunehmen. Als ich ihm erklärte,

질문에 그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부터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은 점점 더 제한되었다. 1993년 4월 3일, 체코 대표단이 판문점을 떠나야 했고, 이어서 1995년 3월 4일 폴란드 대표단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중감위 부단장으로서 중감위 한국 지부에서 필요한 항의 서한을 작성해 북측에 전달해야만 했는데, 이는 북한에서 더 이상 공동경비구역의 수신함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라 불가능해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북측으로 가서 판문각 문을 두드렸다. 담당 중령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상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수신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북한 관광객의 눈과 발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계단 맨 위에 올려 놓겠다고 말하자, 그는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내 서한을 받았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중감위 대표와 북측 인사가 공동경비구역 북쪽 지역에서 만난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후에 북한과의 모든 직통 전화 라인이 끊겼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락망은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한국 적십자 사무소가 매일 오후 4시에 북한의 자매 단체와 통화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한국에 남아있는 스위스와 스웨덴 중감위의 기능과 중요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끊임없이 이어 나갔다. 1995년 5월 3일, 판문점 주재 북한군 연락장교인 유용철 대령은 공동경비구역내 북한 건물들을 폐쇄하고 중감위 대표단의 출입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가 주로 북측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원회의 기록물(특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렸던 전체회의 회의록)에 미쳤다. 이 기록물들은 서울 용산기지 유엔사령부 역사보존소로 긴급하게 이송되어 디지털화 및 전문 보관 작업이 진행되었다.

거의 1년이 지난 1996년 4월 4일 오후 3시에 북한군 대표단은 급히 마련된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남측의 1953년 정전협정 위반 혐의에 대한 다음의 3가지 자위적 조치들이 적시되어 있었다. 첫째,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관리유지 중단. 둘째, 향후 비무장지대 군인들의 붉은 완장 착용 금지. 셋째, 비무장지대 운행 차량에 특수 깃발 부착 금지 등이었다.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북한군도 공동경비구역에서 정기적인 비상 훈련을 실시했다. 1994년 4월 28일과 1995년 2월 20일과 22일, 그리고 1996년 4월 5일 부활절에도 북한군은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1996년 부활절의 비상 훈련은 남북한 사이의 위험한 대치 상황까지 이어졌다. 당일 오후 6시 15분에 표식이 없는 군용트럭이 약 120명의 북한군 병력(정전협정에는 단지 35명까지 허용)을 미리 준비된 군사진지와 감시탑으로 수송했는데, 이들은 자동소총으로 무장(정전협정에는 권총무장만 허용)하고 있었고, 북한군을 표시하는 붉은색 완장도 착용하지 않았다. 남측은 북한군의 이러한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보니파스 기지의 JSA 대대는 신속대응군을 투입하여 약 20분 만에 공동경비구역 남쪽을 점령하고, 스위스와 스웨덴 중감위 기지에 무기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당시에 당직 장교이자 부단장으로서 스위스 중감위를 대표하고 있었지만, 스웨덴 동료와 한국군 유엔 직원과 마찬가지로 유엔군 행동계획에 의거해 보안상의 이유로 20분 이내에

ich würde es auf der obersten Treppenstufe deponieren und damit den Blicken und Schuhen der nordkoreanischen Touristen aussetzen, huschte ein Lächeln über seine Lippen und er nahm den Brief in Empfang. Es sollte das letzte Zusammentreffen eines NNSC-Vertreters mit einem Nordkoreaner auf der Nordhälfte der JSA bleiben. Mit dem erzwungenen Abzug der polnischen NNSC-Delegation ging die NNSC-Süd auch ihrer 1985 etablierten direkten Telefonverbindung mit der Nordseite verlustig. Den noch einzig verbliebenen Kontakt stellte das Büro des südkoreanischen Roten Kreuzes in der JSA sicher, das noch täglich, jeweils um 16:00 Uhr, mit seiner nordkoreanischen Schwesterorganisation telefonierte.

Die Spirale der Massnahmen seitens des Nordens zur Eliminierung von Funktion und Bedeutung der NNSC in Südkorea drehte sich unaufhaltsam weiter. Am 3. Mai 1995 eröffnete uns der leitende Verbindungsoffizier der KPA-Mission in Panmunjom, Oberst Yu Yong Chol, die Gebäulichkeiten der Nordseite in der JSA würden geschlossen und der Zutritt für NNCS-Delegierte gesperrt. Unmittelbare Konsequenz hatten diese Massnahmen in erster Linie für die im Nordteil archivierten historischen Akten (vor allem Protokolle der jeweils am Dienstag um 10:00 Uhr abgehaltenen Plenary Meetings) der Kommission, die in der Folge in einer Not-Übung geräumt und in die Historical Branch des UN Command auf der Yongsan-Base in Seoul gezügelt werden mussten, wo sie digitalisiert und fachgerecht aufbewahrt werden.

Knapp ein Jahr später, am 4. April 1996, um 15:00 Uhr, übergab die KPA-Mission anlässlich eines kurzfristig anberaumten Treffens der UNCMAC ein Schreiben, in welchem nach angeblichen Verletzungen des Waffenstillstandsabkommens von 1953 durch die Südseite folgende «Selbstverteidigungs-Massnahmen» definiert waren: 1. Beendigung von Verwaltung und Unterhalt der Demarkationslinie und Demilitarisierten Zone. 2. Keine Kennzeichnung mehr von Militärpersonen in der DMZ mit roten Armbinden. 3. Keine Kennzeichnung mehr für in DMZ verkehrende Fahrzeuge mit speziellen Flaggen.

Wie die Südseite pflegten die Nordkoreaner in der JSA jeweils Alarmübungen durchzuführen, wie beispielsweise am 28.04.1994 oder am 20. und 22.02.1995. So auch am Karfreitag, 5. April 1996, an einem für Christen wichtigen Feiertag: Um 18:15 Uhr brachten unbeflaggte Militärlastwagen circa 120 (gemäss Armistice Agreement waren nur 35 erlaubt), mit automatischen Waffen (gemäss AA waren nur Pistolen erlaubt) ausgerüstetes, aber ohne rote Armbinde versehenes KPA-

대피해야 했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캠프 비상구로 나를 픽업하러 왔지만, 나는 이미 이곳에 남아있기로 마음을 굳혔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캠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그를 돌려보냈다. 그곳에 남아있는 조건으로 유엔군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사전에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혼자서 개인 방호복(마스크, 조끼, 아트로핀 주사기)을 착용한 후에 스위스 국기가 게양된 스위스 캠프에 전화 교환소를 설치했다. 비상용 스위스 초콜릿도 비축해 두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 않았다. 2시간 후 북한군의 작전은 종료되었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후 2일간 훈련이 반복되었지만 큰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북한군은 비상 훈련을 실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날을 택했다. 공식적인 휴일과 휴무에는 군사행정 부서와 작전부대의 주요 인원들이 최소한으로 감축되고 통신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남측의 지휘체계 붕괴와 혼란을 은밀히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군이 원했던 군사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보니파스 기지에 주둔한 JSA 대대의 랜디 가너 중령에게 적절하게 위임된 지휘책임 권한과 그의 결단력 덕분이었다.

세계 언론에서는 한국 판문점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CNN과 로이터 통신 같은 서방 언론들은 속보에서 "중무장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을 점령했으며, 간접적인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CNN이나 로이터와 같은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던 아내는 스위스에서 JSA 보니파스 기지 교환원을 통해 판문점에 있던 나에게 전화해서 가장 먼저 걱정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다행히 나는 아내를 안심시킬 수 있었다. 나와 아내 모두는 전화선이 여전히 잘 연결되어 서로간 통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다.

이후에 나는 스위스 베른의 외교부와 평화유지작전 담당부서, 그리고 서울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담당자들이 모두 부활절 연휴 중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냈다. 이후로 전 세계에서 전화가 빗발쳤다. 스위스의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사 편집부들은 청취자와 독자들을 위해 한국 판문점의 현지 상황에 관한 뉴스 보도를 원했다. 한국 주재 독일 대사관도 계획하였던 컨퍼런스의 개최가 문제될 것 같아 보이자 연락해왔다. 도쿄에서 독일 언론사의 우베 슈미트 특파원도 현재의 전쟁 위협에 대한 정보들을 요청해 왔다. 당시 내가 현장에 있었던 덕분에 "북한이 여전히 관광객들을 공동경비구역으로 안내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평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베 슈미트 기자는 현실을 반영한 기사를 작성했고, 한국 주둔 유엔사령부나 미국 워싱턴 모두 한반도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잇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내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2년간 복무하면서 경험한 가장

Militärpersonal in die vorbereiteten Stellungen und Wachtürme. Die Südseite reagierte prompt auf diese Provokation: Das UNC-Sicherheitsbataillion in Camp Bonifas schickte seine «Quick Reaction Force», die nach circa 20 Minuten den Südteil in der JSA besetzte und u.a. im schwedisch-schweizerischen NNSC Camp einen Minenwerfer in Stellung brachte.

Als Dienstoffizier und «Acting Member» vertrat ich zu diesem Zeitpunkt die Schweizer NNSC-Delegation, sollte aber, wie mein schwedischer Kollege und unser koreanische UN-Personal, gemäss «UNC-Action Plan» aus Sicherheitsgründen in den nächsten 20 Minuten evakuiert werden. Als mein treuer Fahrer mich am Notausgang des Camps abholen wollte, hatte mein persönlicher Entscheid zu bleiben bereits festgestanden und ich musste ihn unverrichteter Dinge wieder ziehen lassen. Es war ein bewegender Abschied am Stacheldrahtzaun unseres Lagers. Voraussetzung war aber meine Unterschrift auf einer vorbereiteten Verzicht-erklärung, die allfällige Schadensansprüche meinerseits gegenüber dem UNC zum Vornherein ausschloss. Auf mich allein gestellt, rüstete ich mich mit meinem persönlichen ABC-Schutzmaterial (Maske, Überwurf, Atropinspritzen etc.) aus und richtete im Swiss Club unter der Schweizer Flagge eine Telefonzentrale ein. Hier hatten wir für «alle Fälle» u.a. auch einen Notvorrat an Schweizer Schokolade eingelagert. So schlimm sollte es aber nicht kommen: Nach zwei Stunden war die Aktion der KPA vorbei und man kehrte zur Tagesordnung zurück. An den folgenden zwei Tagen wurde die Alarmübung wiederholt; insgesamt lief alles ohne ernste Zwischenfälle glimpflich ab.

Einen besseren Zeitpunkt für die Durchführung ihrer «Alarmübung» hätte die KPA nicht wählen können: Im Wissen, dass in der Regel an offiziellen Feier- und Urlaubstagen zentrale Stellen der militärischen Verwaltung und der Einsatzkräfte auf ein Minimum reduziert werden und der Kommunikationsfluss damit stark eingeschränkt ist, rechnete man bei der KPA wohl insgeheim mit einer möglichen Konfusion und Blockade innerhalb der Kommandostruktur auf der Südseite. Dass diese erhoffte Panne auf militärischer Seite nicht eintraf, war der Entschlossenheit und Kompetenzbefugnis zuzuschreiben, die richtigerweise an den Kommandanten des UNC-Einsatzbataillons in Camp Bonifas, LT COL Randy Garner, delegiert war.

Wesentlich schlechter entwickelte sich die Lage in Weltpresse: CNN und andere westlichen Nachrichtenagenturen wie Reuters verbreiteten in ihren «breakingnews»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였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Die Einsamkeit eines neutralen Obersten beim Grenzzwischenfall in Panmunjom

Sehr unterschiedliche Bewertungen der Lage an der innerkoreanischen Grenze / Von Uwe Schmitt

SEOUL, 10. April. Es war ein klarer, kalter Frühlingsabend am vergangenen Freitag in Panmunjom und spannender als sonst, als man Oberst Alfred Müller vor die Wahl stellte, sein Camp aus Sicherheitsgründen zu verlassen oder, wie vor einem rüden chinesischen Eingriff, ein Dokument zu unterzeichnen, das jede Verantwortung für Schaden an Leib und Seele allein dem Schweizer überzog. Der Offizier unterschrieb und blieb auf eigene Gefahr in seiner Unterkunft, nur zwanzig Meter südlich der Demarkationslinie gelegen. Er hörte die Lastwagen der Nordkoreaner kommen. Er sah, daß die Soldaten ihre roten Armbinden nicht trugen und daß ihre Fahrzeuge nicht beflaggt waren, wie es die Bestimmungen des Waffenstillstandsabkommens verlangen. Es waren mehr als die erlaubten 35 Mann, und sie trugen „halbschwere" Waffen, schwerer, als sie in der „Joint Security Area" (JSA) gestattet sind. Oberst Müller sah, daß Wachtürme besetzt wurden, die gewöhnlich verwaist sind. Er wartete, vielleicht auf den Ausbruch des zweiten Koreakriegs, vielleicht auf einen kurzen Schußwechsel, einen Unfall oder nur eine Farce. Es blieb ruhig, die Nordkoreaner zogen ab. „Es wird manchmal etwas gelächelt über uns", sagt Oberst Müller, der amtierende Leiter der Schweizer Delegation, am Mittwoch dieser Zeitung, aber ich war jetzt herausgefühlt. Man müsse sich klarmachen, was, wie relativ wenig wirklich passiert sei: Auf tausend Quadratkilometern der entmilitarisierten Zone (DMZ), 240 Kilometer lang und vier Kilometer breit, sei überhaupt nichts vorgefallen. Auf knapp einen Quadratkilometer haben die Nordkoreaner wahrgemacht, was sie im Juni vergangenen Jahres angekündigt hatten und was manchen Spott hervorrief, weil sie nicht handelten: Pjöngjang fühlt sich an das Waffenstillstandsabkommen, das von Seoul nie unterzeichnet wurde, nicht mehr gebunden und will einen bilateralen Friedensvertrag mit den Vereinigten Staaten erzwingen. Der Besuch Präsident Clintons in Südkorea, ein wegen der „Krise" von drei auf neun Stunden verlängerter Zwischenstopp auf dem Weg nach Japan, mag Nordkorea gereizt haben, seine Entschlossenheit zu beweisen. Mit jedem Tag wachse die wirtschaftliche und rüstungstechnische Überlegenheit des Südens, meint Oberst Müller, Pjöngjang verfüge nur über veraltetes Material und „die Waffe des armen Mannes", chemische Waffen. Die Nordkoreaner hielten wegen Treibstoff- und Ersatzteilknappheit mit Mühe sowjetische T-72-Panzer in Gang, während der Süden sich russische Kreditschulden mit T-81-Panzern begleichen lasse. Nordkorea wäre nach den ersten Angriffen vernichtet, meint der Schweizer

verloren mit ihrer Staatsreligion ihr Mandat, im Februar 1995 schickte Pjöngjang die Polen nach Hause. Die systematische Ausbildung der Waffenstillstandsinstitutionen zeigt Wirkung. Oberst Müller klagt auch für die Schweden: „Wir glauben, daß wir gute Dienste anbieten können, weil wir als neutrale Länder mit allen demokratischen, sogar stalindemokratischen Traditionen mehr Verständnis für Nordkorea aufbringen können als andere." Es sei ein Jammer, daß Pjöngjang davon keinen Gebrauch mache. Aber man könne der Norden wohl nicht zurück, ohne Gesicht zu verlieren. Eine flexible Lösung müsse gefunden werden, um aus der verhärteten Situation hinauszufinden. Flexibilität aber ist nicht zu entdecken. Nicht im kommunistischen Norden, der den Hardlinern im Süden in die Hände spielt, wenn er verbreiten läßt, die Frage sei nicht, ob, sondern wann der nächste Krieg ausbricht, oder wenn er, wie zuletzt am Dienstag, verzweifelt prahlt, daß „alle Soldaten der Volksarmee voller Kampfgeist sind, die Feinde mit einem Schlag zu vernichten, sobald der respektierte Genosse und Oberkommandierende (Kim Jong-il) den Befehl gibt". Aber kaum auch nicht im demokratischen Süden, zumindest nicht zur Wahlkampfzeit.

Park Yong-ok, Staatssekretär im südkoreanischen Verteidigungsministerium, un-

독일 신문의 사건 보도 기사(1996.4.11.),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Uwe Schmitt (11. April 1996)

중감위 임무를 마치며, 1991년 3월부터 1995년 9월까지 4년 넘게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 수석대표를 역임했던 황원탁 소장의 자조적인 발언을 인용하고 싶다. 그는 1995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중감위 창립기념 행사에서 자신의 활동을 "(실질적 소통이나 의견 교환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대화 없는 대화였다."고 요약했다.

1996년 가을 스위스로 돌아오기 전부터, 한국에서의 근무 시간을 자기비판적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기록하고자 했다. 이를 실행하고자 결심한 계기는 다음의 2가지 사건 때문이었다. 첫번째는 1994년 12월 5일 판문점에서 저명한 미국 사학자이자 해병대 대령인 앨런 밀렛 교수를 만난 것이었고, 두번째는 1995년 11월 19일 스위스 연방하원이자 엠나 베르케 기업의 CEO인 크리스토프 블로허 박사가 판문점 중감위 대표단을 방문한 일이었다. 민병 대령 출신이었던 그는 아시아 순방을 마친 후에 회사 소식지에 스위스 중감위 방문결과를 다음과 같이

die Meldung, «schwer bewaffnete nordkoreanische Truppen seien in den Nordteil der gesamten Demilitarisierten Zone einmarschiert und es herrsche mittelbare Kriegsgefahr». Meine Frau in Zürich, die seit meinem Aufenthalt in Südkorea aufmerksam ausländische TV-Sender wie e.g. CNN verfolgt hatte, war die erste, die mich in Panmunjom per Telefon (das über eine Zentrale in Camp Bonifas geschaltet war) erreichte und sich besorgt über mein Befinden erkundigte. Ich konnte sie zum Glück beruhigen und wir waren beide froh, dass die Telefonleitung immer noch einwandfrei funktionierte.

Als nächstes war ich bestrebt, meine vorgesetzten Dienststellen in Bern (Aussendepartement, Friedenserhaltende Operationen) sowie unsere Botschaft in Seoul zu erreichen bzw. zu informieren. Da alle Verantwortlichen im wohl verdienten Osterurlaub weilten; übermittelteich den positiven Lagebericht wenigstens per Fax an die oben genannten Ämter und Stellen. Was nun folgte war buchstäblich ein Crescendo an Anrufen aus aller Welt. Die schweizerischen Radiostationen und Zeitungsredaktionen aus unseren vier Sprachregionen wollten ebenso einen Situationsbericht für ihre Hörer und Leser erhalten wie e.g. die deutsche Botschaft in Seoul, für welche ein geplanter Kongress aktuell in Frage zu stehen schien. Aus Tokyo meldete sich der Auslandkorrespondent der Frankfurter Allgemeinen Zeitung, Uwe Schmitt, mit der Bitte um Informationen zur «aktuellen Kriegsgefahr». Dank meiner Präsenz auf dem Schauplatz hatte ich unter anderem feststellen können, dass die Nordseite weiterhin Touristen durch die JSA führte und auf der Südseite die Bauarbeiten an der geplanten Autobahn nach Pjöngjang in gewohnter Manier fortgeführt wurden. Aufgrund dieser Informationen verfasste Uwe Schmitt einen der Realität entsprechenden Bericht, in dem er hervorhob, dass weder seitens des United Nations Command in Südkorea noch in Washington je von einer Kris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die Rede war. Dieses Ereignis stellte einen der Höhepunkte in meiner zweijährigen Dienstzeit an der innerkoreanischen Grenz dar: Mich beflügelte der Gedanke, durch meine pure Anwesenheit für die De-Eskalation zwischen beiden Koreas einen essentiellen Beitrag geleistet zu haben.

Als Fazit meiner Mission möchte ich aber gerne das selbstkritische Schlusswort dem während vier Jahren vom März 1991 bis September 1995 als Senior Member der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gierenden südkoreanischen General-major Hwang Won Tak in den Mund legen, der anlässlich des

적었다: "스위스는 판문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1997년 출간된『1953-1997년 변화 시기에 스위스의 한국 임무』책자에서 중감위 대표단의 한계와 가능성을 솔직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어로도 출간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다.

이후 스위스로 복귀하여 약 15년간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에서 역사 기록보관소 책임자로 근무했다. 1999년 군복무를 마친 후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는데, 이전에 군사대표로 파병된 적이 있던 발칸 반도와 동아프리카에 파견되어 봉사임무를 수행했다. 비무장 및 비영리단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이전에 한국에서 수행했던 잊을 수 없는 평화지원활동과 더불어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2025년 5월 4일 취리히에서

NNSC Geburtstagsempfangs vom 27. Juli 1995 in Panmunjom seine Tätigkeit wie folgt zusammenfasste: «It was a dialogue without dialogue».

Bereits vor der Rückkehr in die Schweiz im Herbst 1996 war auch ich von der Idee beseelt, meine Dienstzeit in Korea in einer selbstkritischen Darstellung Revue passieren zu lassen. Zwei Ereignisse bestärkten mich dabei, dieses Vorhaben in die Tat umzusetzen: Einerseits das erste Treffen mit dem renommierten amerikanischen Historiker und Oberst des US-Marine Corps, Professor Allan R. Millett in Panmunjom am 5. Dezember 1994. Anderseits der Besuch unseres Nationalrates und Inhaber der Emser Werke, Dr. iur. und Oberst Christoph Blocher, bei der Swiss-NNSC am 19.11.1995, der nach Abschluss seiner Asienreisein der Emser-Werkzeitung über den Aufenthalt im Swiss-Camp u.a. schrieb: «Die Schweizer tun nichts in Panmunjom». In meinem 1997 veröffentlichten Buch mit dem Titel «Schweizer Korea Mission im Wandel der Zeit 1953-1997» versuchte ich die Grenzen und Möglichkeiten unserer Mission offen darzulegen. Gerne hätte ich mein opus auch in koreanischer Sprache abgefasst, verfügte aber leider dazu nicht über die nötigen Sprachkenntnisse.

Beruflich leitete ich in der Folge während rund 15 Jahren das Historische Konzernarchiv der UBS, unserer grössten Schweizer Bank. Nach Abschluss meiner Militärdienstzeit 1999 engagierte ich mich beim Internationalen Komitee vom Roten Kreuz, IKRK, wo ich als «Delegate to Armed Forces» auf dem Balkan und in Ostafrika im Einsatz stand. Diese Mission im Auftrag einer unbewaffneten, ausschliesslich opferbezogenen Non-Profit-Organisation erfüllte mich neben dem unvergessenen Friedensdienst in Südkorea mit grosser Genugtuung.

Zürich, 4. Mai 2025

스위스 군인들의 한국 이야기



Die Geschichte der Schweizer Soldaten in Korea



베아트 헨니 Beat Haenni

전자현미경에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까지

베아트 헨니 / 예비역 소령



2014-2015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근무했고
베른 대학교에서 연구실장으로 일했다.

스위스에서 군복무는 남성의 의무이다. 모든 군인은 4개월 간의 신병교육을 마친 후에 매년 3-4주 간의 동원 소집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계급과 연령에 따라서 최대 복무일수는 정해져 있다. 나는 소위로 진급한 후에 해외 파병복무에 지원하였고 유엔군사감시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00년에 첫 임무지로 중동에 파병되었고, 복귀 후에는 해외파병센터의 교관 장교로 전세계에 파병되는 군인들의 파병교육을 담당하였다. 연간 4주 간의 군복무는 민간 직업에도 매우 흥미로운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 다시금 평화유지군에 지원해 한국으로 파병되었다.

민간 직장인 베른대학교에서는 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전자현미경을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모든 연구그룹의 기술지원을 책임지는 일이었다. 이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직무였다.



베른대학교 전자현미경 연구실, An electron microscope in the 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Bern

From an electron microscope to the bridge of no return

Beat Haenni / Major(ret.),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During the years of 2014-2015 he was a member of NNSC in Korea.
He worked in a research laboratory of the University of Bern.

Military service is mandatory in Switzerland, after the ground school of 4 months all must spend 3-4 weeks of refresher service every year up to a certain number of days depending on the rank and age. After becoming a first lieutenant, I applied for a mission abroad and successfully passed the UN course to become a military observer. For my first mission in the year 2000 I was sent to the Middle East, returning from there I became an instructor at SWISSINT and was educating office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become peace supporters. This took me 4 weeks every year and gave me a very interesting change to my civilian job. At the end of my military career, I applied for another mission and was then sent to Korea.

In my civilian job I'm the head of a research laboratory at the University of Bern. I'm responsible for the technical support of all research groups who are using electron microscopy for their projects. This is a very versatile job as I could work in a lot of different research fields.

For the missions I got one year of unpaid holidays from the University and was engaged by the Swiss government to serve abroad. This made it very relaxing for me as I did not have to look for a job after my return but could just return to my working place and go on as before.

My family did not follow me to Korea, my wife has a good job in our community and both kids have been in the middle of their education. But my wife visited me twice for two weeks each time to spend holidays with me. I showed her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 our camp in Panmunjom and we went to Jejudo for hiking,

나는 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에 1년 간 무급 휴가를 내고 정부 파견 해외근무를 하였다. 스위스로 돌아온 후에는 구직 활동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이전 직장에 복귀하여 예전처럼 일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한국으로 파병 갈 때 가족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아내는 스위스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두 아이는 모두 학업 중이었다. 대신에 아내는 두 번 한국을 방문해 나와 2주간의 한국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아내와의 첫 여행에서는 서울과 외곽지역, 그리고 판문점 캠프를 방문하였고, 제주도에서는 하이킹을 즐겼다. 두 번째의 여행에서는 버스를 타고 속초로 내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렌터카를 임차하여 부산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KTX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일주일 밖에 시간이 없어서 판문점과 서울만 둘러보았다.



관악산 정산, On Gwanaksan, 632m

중감위 복무자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판문점에서 당직 근무를 서야 했다. 그러면 평일 근무시간이 단축되었고 사진 촬영이 취미인 나는 카메라를 들고 판문점 인근의 온갖 꽃들과 식물, 그리고 동물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었다. 당직 근무가 없는 주말에는 미군 용산 기지에 있는 서울 숙소에 머물렀고, 이렇게 쉬는 날에는 서울 주변을 하이킹 했다. 한국에서 해본 장거리 하이킹 중에 하나는 옛 성벽을 따라 걷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이킹을 하면서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서울의 여러 지역들을 탐방하였고 많은 역사적인 건물과 성문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나는 하이킹을 정말 좋아해서 여유로운 주말에는 대부분 하이킹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4월에는 원미산 진달래 축제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했고 5월에는 두 번에 걸쳐 장거리 하이킹을 했다. 첫번째 코스로 관악산을 올랐는데 바위 위에 세워진 사찰 연주암에서 서울시 가지 전망을 감상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두번째는 인왕산을 하이킹했다. 이후 아내와 함께 자운봉과 속초에 있는 울산바위에 올라 주변의 멋진 풍경을 감상했다. 또한 제주도 성산일출봉과 한라산에 오르기도 했다. 모든 여정에서 항상 매우 친절하고 활발한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가끔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내가 판문점에서 일한다고 대답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매우 감격해 하였다.

한국에서의 하이킹은 스위스와는 다른, 재미있는 차이점이 있었다. 스위스에서 하이킹을 하면, 거의 모든 언덕과 산에 식당이나 산장이 있어, 정상에 오르거나 하산할 때 음료를 사서 먹을 수가 있었다. 한국에서 하이킹을 시작할 때 똑같은 것을 기대했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다. 그러나 내가 올라간 산에는 식당은 없었지만 불교 사찰은 어디에나 꼭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on the second trip we went by bus to Sokcho, got a rental car and were driving to Busan. From there we went back to Seoul on the KTX train. With our kids we visited also Panmunjom and Seoul as they could just spend a week in Korea.

I usually had to work one weekend per month in Panmunjom but with a reduced service, so I had time to discover the camp with all the flowers, plants and animals living there with my camera as photography is one of my hobbies. All other weekends I went to Seoul where I had an apartment in the US base. As I like hiking very much, I spend my off days with hiking in and around Seoul. One longer hike which I have done on several days was the walk along the old city wall. Doing this I came into areas of Seoul I never was before and passed a lot historical buildings and gates.

As I like hiking very much, I spend a lot of my free weekends hiking. In April I was visiting the Wonmisan Mountain Azalea Festival and enjoyed the wonderful flowers. In May I did two longer hikes, the first one leading me to Gwanaksan where I was impressed about the temple on top of the rocks and the view over part of Seoul. For the second hike I went up to Seonbawi and from there to Inwangsan.



아내와 함께 오른 울산바위, My wife and me on Ulsanbawi, 873m

Later I went with my wife to Jaunbong Peak and in the east to Ulsanbaui rock, on both we enjoyed a wonderful view over the surrounding area. Finally, we went



겨울철의 판문점 풍경, Panmunjom in winter season

도착 첫해 3월에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 끝나가는 무렵이어서 동식물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4월과 5월의 비무장지대 자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듯했고, 곳곳에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빛깔의 나비와 곤충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새들과 파충류, 특히 뱀도 많았다. 숙소 앞 건물 사이에는 도로를 비추는 가로등이 서있는데, 매일 저녁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등불에 타 죽은 곤충들이 입속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크고 뚱뚱한 두꺼비 한 마리가 있었다. 나는 두꺼비에게 "미스터 김"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미스터 김의 먹이 사냥을 관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길이 241 km, 너비 4 km의 한국 비무장지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구역이다. 군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고 자연은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자라고 번식한다.

4월이 되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벚꽃 구경을 갔는데,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도 사진을 찍으면서 봄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노점들도 줄지어 있었고 전통 의상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퍼레이드도 곳곳에 펼쳐졌다.

5월의 어느 날, 중감위 캠프에서 뱀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후 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시간이 날 때마다 손전등과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서 소위 '뱀 산책'을 거행했다. 뱀은 해가 질 무렵에 나타나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이다. 뱀을 잡아서 나무막대기로 플라스틱 상자에 집어넣은 후에 뱀이 진정되면 꺼내서 멋진 사진을 몇 장 찍은 후에 군사분계선 인근에 다시 놓아주었다.

몇 달 동안 캠프 인근에서 5마리에서 10마리의 뱀을 발견했다. 그러나 스위스 대표단장은 한국에서 근무한 2년 반 동안에 뱀을 한 마리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며칠 후에 다른 뱀을 잡았는데 독사였다. 이를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서 밤새 보관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사시간에 독사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주방에 나타나자 직원들이 기절초풍했다. 덕분에

on Jejudo on Seongsan Ilchulbong and Hallasan. At all those events I always meet very friendly and sportive Korean people and sometimes they even asked me questions about what I'm doing in Korea, and some were very impressed when I told them that I work in Panmunjom.

One nice and funny story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hiking in Switzerland and Korea, I would like to tell you in the following. If you go for hiking in Switzerland on almost all hills and mountains you will find a restaurant or a cabin, where you can get food or drinks on your way up or even on the top. So, I expected the same when I started hiking in Korea, but I was wrong. I barely found a restaurant on those mountains I went up, but on almost all mountains I found a temple – it seems that Korean people prefer to have a prayer instead of having food and drinks.

When I arrived in Panmunjom in March it was the end of winter and animals and plants were barely to see. But in April and March nature in the DMZ seems to explode, all over flowers started flowering and I could see a lot of beautiful colored butterflies and other insects. Also, there were plenty of different birds and some reptiles, especially snakes around. In front of our accommodation, we had some lamps to illuminate the path between the different buildings. Under this lamp I found every evening a big fat toad just sitting there and awaiting insects to be killed by the lamp and falling in his mouth. I named him "Mister Kim" and spent quite some time observing him during his daily meals. The DMZ is 241km long and 4 km wide, with this it is the biggest nature reserve on earth. Besides some military personnel no one is allowed to go in and nature can grow and multiply without anyone disturbing.

In April cherry tree blossom started and I went to the area around the parliament building to see all those flowering trees. I was of course not alone – thousands of people were there to take photos and enjoy springtime. It had some food booths with typical Korean food and some music parades in traditional clothing.

Some when in May I have discovered the first snake in the NNSC camp in Panmunjom. My interest was piqued and so whenever I had time, I made a so called "snake walk" through the camp equipped with a flashlight and a plastic box as most of them are night active and just showed up during dusk. I caught the snakes and moved them with a wooden stick into my plastic box. Once they calmed down, I

중감위 단장은 2번째로 보는 뱀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다. 판문점에서 복무하는 동안에 5종류의 뱀을 잡아서 사진을 찍었다. 뱀들은 나중에 모두 다 풀어놓아 주었다.



판문점에서 발견한 5종류의 뱀, The 5 snake species found in Panmunjom

서울에서 처음 자유 시간을 얻은 주말에 주변 탐방을 나갔다가 우연히 조계사를 발견했다. 한국에서 처음 본 불교 사찰이었다. 아주 멋진 사찰이었고, 사찰 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기 위해 화려한 등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불교에 대해 잘 몰랐고 또한 아직 밖이 꽤 쌀쌀했기에 사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한 시간 넘게 사찰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부처님께 짧게 기도를 드린 후에 일하러 가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 그러다가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아름다운 등불 행렬을 구경한 후에 조계사로 돌아와 화려하게 켜진 조명 불빛들을 보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다.

한국으로 파병 가기 전에 발꿈치 수술을 받았기에, 평소에 습관처럼 달리던 조깅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6월에서야 비로서 천천히 훈련을 재기하였는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이에 내가 참가 가능한 달리기 대회들을 찾아보았다. 9월에는 제11회 철원 비무장지대 국제평화마라톤에 참가하여 10km 코스를 완주했다. 마라톤 행사는 잘 준비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쌀 3kg, 음료수, 그리고 비빔밥이 제공되었다. 완주한 모든 사람들은 멋진 메달도 받았다.

took them out of the box, having my camera ready I took some nice photos and finally released the snakes close to the demarcation line.

After just some months I had seen 5 to 10 snakes in the camp and my boss, the head of the Swiss delegation, a Major General told me that he was in Korea for 2.5 years and had only seen one snake. Some days later I found another snake, caught it, although it was a poisonous viper and kept it overnight in my plastic box. The next day I took the viper with me for breakfast, the kitchen staff almost turned crazy when I showed up with the box but on this way my Major General was able to see his second snake from very close up. During my year in Korea, I was able to catch and take photos of5 different species, all were later again released.

On one of my first free weekends in Seoul I went for sightseeing and came across the Jogyesa temple, it was the first Buddhist temple I saw in Korea. It is a very nice temple, and the outside was already decorated for the birthday of Buddha with a lot of colorful lanterns. As I did not know a lot about Buddhism, and it was still quite cold outside I decided to go into the temple to watch what is going on. I stayed there for more than an hour and saw people coming and going, some came in for a short prayer and went probably back to work. Some others stayed longer reading in a book or whispering with other people. The idea popped up that I could do a temple stay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s. On Buddhas birthday I went to the beautiful lantern parade and back to Jogyesa temple to see all those colorful lanterns illuminated – very impressive.

Before I left Switzerland for Korea, I had to undergo some surgery on my heel and had to stop my regular running. I could just slowly restart with training in June, but it went well and I looked around for possible running races. In September I participated in the 11th Cheorwon DMZ International Peace Marathon, I did the 10km loop. Everything was well organized all participants got 3kg of rice, some drinks and Bibimbab, all finishers got a nice medal.

One of our interpreters got married and I could represent the Swiss delegation at the wedding, it took place in one of those big hotels in Seoul. The ceremony took place in a room that looked like a church and was beautifully decorated with a lot of flowers. I enjoyed the ceremony very much and we moved then to another room where a huge buffet was built up with all different Korean food.

한번은 스위스 중감위를 대표하여 통역사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결혼식은 서울 큰 호텔의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교회처럼 보이는 홀에서 거행되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다른 방으로 이동해 다채로운 한국 음식으로 가득 찬 거대한 뷔페를 즐겼다.

중감위 임무가 끝나기 한 달 전에 나의 '버킷리스트'에 있던 템플스테이를 주말에 완수할 수가 있었다. 토요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금선사를 방문하여 주말 동안 머물렀다.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사찰 곳곳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 투어를 하였다. 명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108배도 시도해 보았다. 채식으로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는 명상 세션과 요가 강의가 이어졌고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12명의 남자들이 모두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기도에 참여한 후에 1시간 동안 명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밤시간은 무척이나 짧게 지나갔다. 비구니의 안내로 사찰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진행 중인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가 108개의 나무 구슬을 꿰매어 목걸이를 만든 후에 전통 다도 체험에 참여했다.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사찰 뒤편 바위에 올라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나눴다. 나는 사찰에서 보낸 주말을 매우 즐겼고, 평온함과 연민, 명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이고 개인적 풍요로움을 통해 많은 한국인의 삶을 형성하는 영적 성취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도 했다.



판문점의 군사분계선, The demarcation line at the bridge of no return in Panmunjom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고, 한국 고유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많이 보고 배우고 느꼈다. 1년 동안 군사분계선 남쪽 25미터 지점에서 숙박하면서 중감위로 근무했던 시간들은 어딘가 모를 특별함이 있다. 나는 철조망 너머에도 햇살이 계속 비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한국과 북한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5년 4월 23일 베른에서

One month before the end of my mission I finally could tick off the point temple stay on my to do list – I went for a weekend into a temple. On a Saturday after lunch, I made my way to the Geumsunsa temple to spend the weekend there. After a warm welcome we got temple clothing and a guided tour through all the buildings. We got instructions about meditation and had to do 108 bows. A vegetarian dinner was followed by another session of meditation and a lecture in yoga. At 9.00 p.m. we had to go to sleep, all 12 male participants were sleeping in the same room. The night was quite short as we had to get up before dawn at 4.30 a.m. to join the morning prayer ceremonies followed by another hour of meditation. We were than guided through a traditional ritual breakfast by a female monk and had the chance to ask questions about all what was going on. Everyone could create a necklace with 108 wooden balls before joining a traditional tea ceremony. Finally, we went on some rocks behind the temple where we could overlook the beautiful area and said goodbye to each other. I enjoyed this weekend very much and gained insight into spiritual fulfillment framing many Korean lives through cultural and personal enrichment centered on serenity, compassion and contemplation.

I enjoyed my time in Korea very much and learnt a lot about culture and way of life. Working and sleeping for a year just 25m south of the demarcation line is somehow special but I can confirm that the sun is also shi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barbed wire. I wish you from the deepest of my heart that you will once it the future be able to overcome all obstacles and finally get a reunion with the North Korea.

Bern, 23.04.2025

판문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ir danken Ihnen von ganzem
Herzen für Ihren Beitrag
zum Frie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in Panmunjom.

Korea
Switzerland

Korea
Switzerland